

EASY

FUN

LOVE

큐원 홈메이드

홈 베이커리를 더 쉽게, 즐겁게
엄마의 사랑을 담아 더 맛있게!

만들기 쉬우니까
아이들도 좋아하니까
맛은 더 건강하니까
매일매일 자랑하고 싶은
우리가족 간식, 큐원 홈메이드



겉은바삭 속은쫄깃, 스페인 정통 츠러스의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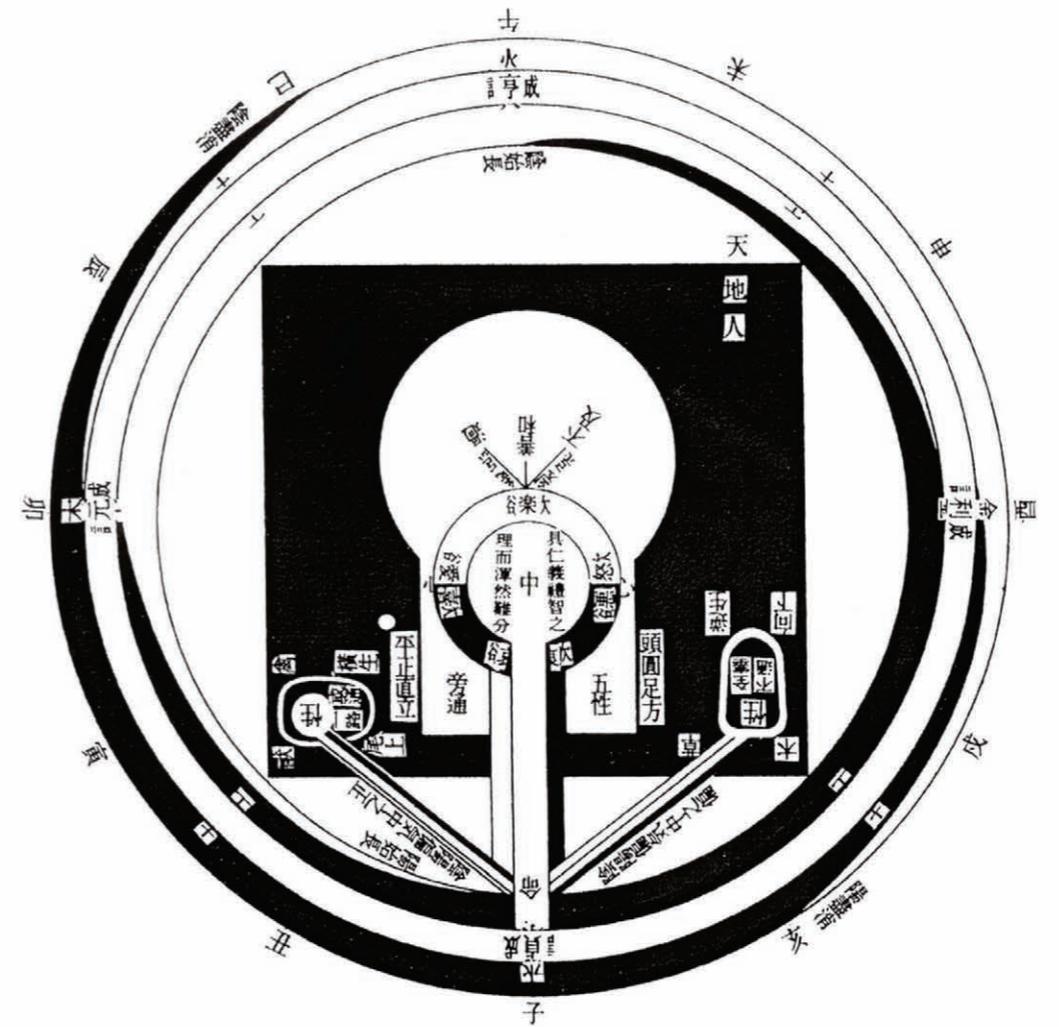
인도 전문 레스토랑에서 즐기던 담백한 맛!



16가지 곡물분말로 더욱 고소하고 담백한 맛!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河西道學과文學



하서 선생의 천명도(天命圖)

筆巖書院 山仰會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河西道學과文學

— 제31호 목차 —

하서 선생의 왕도시	2
김정수(울산김씨 전 대종회장)	
박회양부 薄淮陽賦에 나타난 하서 김인후의 비분 悲憤	8
김상집(전남대 고전한문 번역 박사과정 수료)	
금암열전 汲黯列傳(사마천 『사기열전』 제60)	22
조선을 빛낸 호남 출신 학자와 문인들	29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필암서원·산양회 소식	31

— 알림 —

1. 방명록에 새 주소와 변경된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십시오.

2. 회비 입금 계좌 및 입회 절차 안내

- 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회 강연회나 필암서원 춘추향제에 나오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는 3만 원이며, 연 회비는 4만 원입니다.
- 전화로 신규가입을 신청하실 경우 (사)필암서원산양회 계좌(농협 301-0093-8931-91)로 입회비 3만 원을 입금하시고 김재수(010-2705-6395)에게 전화나 문자로 다음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 ① 성명(한문) ② 본관 ③ 아호(한문) ④ 생년월일 ⑤ 주소 ⑥ 전화번호(주택, 휴대폰)
 - ⑦ 현직 또는 경력

하서 선생의 왕도시

김정수(울산김씨 전 대종회장)

河西 선생은 1,600수의 시를 남겼다. 실로 방대한 양이다. 그 위에 음풍농월의 풍류시가 아니라 거개가 도道를 담아 전하는 소위 載道詩¹⁾이기에 의의가 매우 크다.

하서 선생은 시로써 우주의 본원을 엿보고, 태극·천리·천명·이理와 기氣·성性·정情에 대한 형이상학적 담론은 물론 삼강오륜, 정치, 시사, 민생, 우국, 충군, 애민 등에 대한 심오한 온축蘊蓄을 표출하였다. 따라서 일부 논자의, 하서 선생은 논저가 적어서 학문과 사상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 깊이 음미하고 사색하면 시 한 수에서 수 편의 논문보다 더 무게 있는 학설과 사상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서 선생의 시는 선생의 학문과 사상의 보고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다음에 든 『논어·위정 二』에 있는 한 장구를 근거로 하서 선생이 시로써 초야에서 실질적인 정치권, 더욱이 왕도를 베풀었음[시어왕도²⁾施於王道]을 엿볼 수 있는 시 수편을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이가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왜 정사를 보지 않으십니까?” 공자는 대답하였다. “선書에서 효에 대하여 말했다. ‘부모께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여 정사에 베풀다’라고. 이 또한 정사를 보는 것이니, 꼭 베풀어 정사를 보는 것만이 정사이겠느냐. (或謂孔子曰 子奚不爲政 子曰書云孝乎 惟孝友于兄弟 施於有政 是亦爲政 奚其爲爲政)” 주지³⁾는 베풀지 않아도 효제孝悌를 충실히 실천하는 일, 또한 정사는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다.

여기에서 잠깐 하서 선생이 재관하던 시기의 정치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16세기 전반기 중종의 조정은 반정공신과 척신이 주류를 이루고 국정을 우이⁴⁾耳잡고 있었다. 이러한 조정의 일각에 신진 사류가 진출 펴고 주류를 견제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은 주로 중하위직에 있으므로 힘이 미약하였다. 그래도 신진사류는 관동이야 중하위직이지만 대개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등 사정·언론의 주요직을 차지하여 신진의 이상과 패기로 점차 국정상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었다.

이들 신진사류는 하나같이 하(夏)·은(殷)·주(周) 3대의 왕도(王道) 지치(至治) 구현이라는, 유교정치(儒敎政治)의 이상을 추구하여 열정을 불태웠다 이러한 기운에 때를 맞춘 듯, 종종 10년을 전후하여 혜성처럼 등장한 기수가 바로 정암(靜庵) 조광(趙光)이었다. 정암은 사류를 규합하여 선두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3대의 왕도 지치 구현을 위해 과감하게 매진했으나, 훈구세력의 반격으로 일조(一助)에 무참하게 패퇴하였다. 그를 비롯한 사람과 관료들이 화를 입고 갈구하던 이상정치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다. 이른바 종종 14년의 기묘사화(奇杁事化)다.

정암의 죽음은 아주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광풍이 휩쓸고 간 폐허에서 사류는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나 종종 30년을 전후하여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퇴계(退溪) 이황(李滉), 송재(松齋) 나세찬(羅世縝), 금호(鎬湖) 임형수(林亨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휴암(休庵) 백인걸(白仁傑),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등 일세의 준걸 명류들이 조정에 진출하였다. 이들이 정암의 뒤를 이어 지치(至治)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진력하였다. 이 무렵엔 다행히 공신 권신 훈구세력은 쇠퇴했지만, 대신 척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사류 관료의 발목을 잡았다.

다행히 세자(후의 인종)에게 성군(聖君)의 자질이 있어서 장차 보위에 오르면, 이들 사류가 새 왕을 모시고 지치의 꿈을 이루리라는 꿈을 키우고 있었다. 이상은 항상 요원한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인종(仁宗)은 즉위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승하하고 을사사화

라는 폭풍이 내습하여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기묘사화에 이어 두 번째의 좌절이었다.

하서 선생은 인종 승하 직후, 을사사화의 폭풍 전야에 왕도 지치의 꿈조각을 안고 옥과현감을 내 놓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31세에 출사하여 36세에 치사(致仕)하였으니 재관 기간 겨우 5년이었다.

차사 이후 명종조에서 반복하여 집요하게 관직을 내려 출사를 강요하였으나, 끝까지 물리치고 절의를 지켜 별세하기까지 14년간 임하(林下)에서 순수 야인으로 좌절된 꿈을 달래며 유유자적하였다.

말이 유유자적이지 실은 그게 아니었다. 헤아리건대 관직에는 원래 영담(靑澹)한 분이고, 벼슬의 목적이 일신의 영화에 있지 않고 오로지 성리학적 가치관에 근거한 유교의 이상정치를 구현하고자 함이었다. 관직은 그 수단에 불과하였다. 이 이상이 좌절되자 추호의 미련없이 관직을 던져버린 것이다. 비록 출처(出處)의 대의를 지켜 야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왕도 지치의 이상은 접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서 선생의 재야생활은 결코 음풍농월(吟風弄月)의 한일월(閑日月)이 아니었다. 후진을 교육하고 독서하고 사색하며 시를 짓고 저술하는 한편, 조야(朝野)의 지인과 서書の 왕복(往復)의 수창(酬唱)을 통해 폭넓은 교류(交遊)를 이어갔다.

재조 때 이상으로 우국충정에 고뇌하고 민생에 애태우며 상심(傷心)의 나날을 보낸 자취

를 남긴 시문에서 엿볼 수 있다. 전원에서 백성民과 더불어 살면서 도탄塗炭에서 신음하는 그들의 생활을 목격할수록 더욱 왕도 지치의 이상을 내연시켰을 것이다.

여기에서 잠시 본고의 주제의 핵심인 「왕도王道」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왕도의 사전적인 뜻은 ‘하·은·주 3대의 도로서 공명정대 公明正大 무사무편無私無偏의 치도治道’를 말한다. 이 말이 나오는 최초의 문헌은 『상서尙書』다. 『상서尙書』「홍범洪範」에 “…… 무편무당無偏無黨 왕도탕탕王道蕩蕩 무당무편無黨無偏 왕도평평王道平平 무반무척無反無側 왕도정직王道正直…(왕이 된 자는 사사로 치우치거나 편들지 말고, 왕의 도는 공평해야 된다. 또 사사로 편들거나 치우침이 없고 왕도는 평이해야 된다. 더욱이 도에서 벗어남이 없고 기우는 일 없고 왕도는 반듯해야 된다. …)”라고 나온다.

위와 같이 『상서尙書』의 「왕도」는 난삽하고 관념적이다. 이 말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인 정치 용어로 바꾼 이가 맹자孟子다.

『맹자孟子』「양혜왕梁惠王 상. 3장·7장」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농사 일이 바쁜 때를 방해하지 않으면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게 되고, 늪이나 못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촘촘한 그물을 못 쓰게 하면 어류는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불어나고, 산림에서 아무 때나 나무를 벨 수 없게 하면 재목을 다 쓸 수 없을 만큼 넉넉해진다. 이렇게 곡식과 어류를 다 먹을 수 없고, 재목을 다 쓸 수

없을 만큼 되면, 백성들이 생전의 생활이나 사후의 장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생전의 생활과 사후의 장제에 걱정이 없게 하는 것이 왕도의 시작이다. (원문 생략. 주자는 여기에 ‘왕도는 민심을 얻는 것을 근본으로 여긴다’고 주를 붙였다.)

…70세 된 자가 비단옷 입고 고기를 먹으며 젊은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도록 하고 서도 왕 노릇 못하는 자는 없었다.(원문 생략. 여기에 주자는 ‘왕도의 완성’이라는 주를 붙였다.)

맹자가 말한 왕도는 천언만언의 현학적인 풀이가 필요 없다. 쉽게 말해 왕도는 위정자가 백성을 애련히 여겨 아끼고 사랑하며[애민 愛民], 백성을 보호하며[보민 保民], 백성이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고 편안히 살 수[안민 安民]있게 하는 정치다.

이제 모두에서 든 『논어』 장구와 그 다음에 예시한 『맹자』 장구를 염두에 두고 해서 선생의 시수 편을 고찰하고자 한다.

서풍西風

여름철엔 남풍이 불어야지

夏月宜南風

서풍 불어 굶은 일만 생기네

西風吹作惡

비구름 말끔히 쓸어가

掃破欲雨雲

하늘 파랗게 활짝 열렸네

天宇轉寥廓

한낮 해 이글이글 불벌 쬐니

白日暴光耀

만물이 온통 녹아 스러지네

百物皆銷鑠

백성들 우러러 그저 한숨만

生靈仰嗷嗷

어디라 호미 쟁기 댈 곳 없네

何處是錢鎛

지금은 바로 자라는 계절

正當長養節

네 철이 각각 고루 나뉘었거늘

平分四時各

괴이하다 침노하는 가을 기운

恠茲秋令侵

왜 갑자기 몰려와서 해치는가

何遽來相薄

밤이 되자 더욱 서늘 쌀쌀

夜來更淒淒

누각 비추는 달빛도 서늘하다

涼月照樓閣

풀숲에 징징 우는 벌레 소리

草間唧唧聲

귀에 울려 더욱 스산해지네

聽此心蕭索

단장斷腸의 시다. 이 시를 보면 하서 선생은 초려草廬 안 책상머리의 선비가 아니다. 속세

와 절연된 물외한인物外間人이 아니다. 한여름에 서풍이 분들 동남풍이 불든, 그건 아랑곳할 것 없는 한낱 자연 현상에 불과하다. 서재안의 선비에겐.

그러나 하서 선생은 만물이, 그 중에서도 농작물이 자라야 할 여름에 하필 웬 서풍이냐, 이 가뭄에 백곡이 다 타들어가는데, 비를 쫓는 서풍이 부니 비를 기대할 수 없다. 이대로 계속 가물면 흉년이 들 것이고, 그러면 우리 불쌍한 농민들은 굶주려야 한다. 야속한 하늘이다. 원망과 탄식을 넘어 가슴 저리고 마음이 아파 호곡을 삼키는 부르짖음이다. 절망적인 농민 백성과 함께 서풍을 원망하고 다가올 처참한 기아의 세월을 통한하는 시다. 단순한 서정시가 아니라 바로 애민의 시다.

예맥세麥

푸른 보리밭 처음엔 가뭄 겪더니

綠浪初經旱

누렇게 익어 그래도 보리가을 맞네

黃雲尚趁秋

대가 가늘어 낫 대기 어렵고

莖微難用鉞

열매 작아 어찌 광주리 채우랴

實小豈盈篝

고달픈 백성살이 눈 익혀 보니

草草看民事

아득한 나라 근심 안게 되는 걸

悠悠抱國憂

부끄럽다 무능한 몸 홀로 배불러
 無能慙獨飽
 긴 저녁 남쪽 누에 기대 있다니
 永夕倚南樓

「상전가^{傷田家}」라 제題한 일련의 시 중 「예맥
 刈麥」이다. 가뭄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해 알맹
 이가 차지 않은 보리가을을 맞아 보리 베는
 농민을 보고 애달프게 읊은 시다.

봄 가뭄이 심했기에 온전히 여물지 못한 반
 알의 보리를 베어야 하는 농민들을 보며 시름
 겨워하는 모습이 선연하다. 이들을 무연히 바
 라보며 그들이 겪을 굶주림을 걱정하고, 나아
 가 이들을 구휼하지 못하는 나라 일을 한탄하
 며 잠 못 이루는 밤은 또 그 얼마일까.

선생의 애민·보민·안민·우국 충정이 고향지
 질^{膏肓之疾} 이 된 양하여 후세의 우리를 슬프
 게 한다.

운묘^{耘苗}

피플은 가뭄에도 번성만 하니
 艱莠旱猶蕃
 농가의 괴로움 이루 다 말 못해
 田家苦未言
 땅이 말라 호미조차 받지 않아
 地乾鋤不入
 불별 쪼니 농작물 남아날쏜가
 日暎穀難存
 일이 다 시들어 보기 가없어라

撫萎方憐葉
 마른 포기 복돋워 뿌리 감싸네
 培枯更護根
 주린 배 채우기 가망 없지만
 充飢非所望
 그렇다고 농사일 저버리라
 切勿負田園

역시 「상전가^{傷田家}」라 제한 시 중 「운묘^{耘苗}」
 다. 하서 선생은 어쩌면 이렇게도 자상하게
 농민의 생활을 구석구석 살피는, 애정어린 관
 찰안을 가졌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마
 른 논에서 김 매는 농부를 보고 농민과 함께,
 타들어가는 논바닥처럼, 타들어가는 스스로
 의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장차 맞이할 저 농민들의 기아를 또 어찌 구
 휼한 것인가. 일찍이 조정에서 왕의 시종신으
 로 구름 위 선인처럼 귀한 신분이었지만, 일
 단 귀향하여선 저 팍투성이 흉투성이 농부들
 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 함께, 괴로워하고 한
 숨짓고 가슴 조이는 모습은 얼마나 귀하고 아
 름다운가. 애민·보민·위민·안민의 고귀한 정
 성이 향간에 넘치지 않는가.

랍전삼백^{臘前三白}

휘날리는 하얀 눈을 설 전에 세 번 보니
 先臘三看白雪翺
 바다나라복 많아 풍년을 점치네
 海邦多慶占豐年

메뚜기는벌써땅속깊이들어가고

蝗蟲知己深投地

벼농사끝내성해논에가득차리

禾稼終當盛滿田

여기저기산과들엔은세계펼쳐지고

隨處山原銀界遍

산에가득찬나무들옥가지연해있네

盈林樹木玉枝連

늙은농부문열고서로다투어축하하며

老農開戶爭相賀

노래지어임금께올리자고

擬獻歌詞黼座前

앞에 나온 시들과는 약간 다른 정서,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의 시다. 하지만 애민·보민·위민·안민의 시점視點은 다름이 없다. 예로부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이듬해에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어 왔다. 설 전에 세 번이나 눈이 흠뻑 내리자 해서 선생은 모처럼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마냥 흥년에 시달린 우리 농부들 배부르겠다 싶어, 동심으로 돌아가 늙은 농부들과 더불어 환희작약하는 모습에 후세의 우리도 환하게 가슴이 열린다. 아니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얼마나 리얼하고 섬세한 표현인가.

날이 가물면 농민과 더불어 애태우고 마음 아파하며, 우순풍조하여 풍년 조짐이 보이면 역시 농민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여민일체

與民一體의 정신을 진솔하게 표현한 시다.

자고로 시라 하면 외물外物과 접촉하여 촉발되는 감흥을 아름다운 언어로 풀어내므로 유미적唯美的 탐미적耽美的으로 흘러 속세와 격리된 예술의 경지에 고립하는 속성이 있다. 이른바 서정시가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위에서 예시한 하서 선생의 시편들은 이런 통념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위의 시편들은 우선 제재題材부터가 일반 시와 다르다. 자연의 풍물이나 인간의 희노애락喜怒哀樂과 애증愛憎 등을 읊은 것이 아니다. 농민의 힘든 노동, 농작물의 작황, 풍년 기원, 흥년·기근에 대한 우려와 나아가 우국 충정 등이 제재가 되어 있다. 주로 민생 문제다. 농민(또는 백성)에 대한 끝없는 연민의 정, 바꾸어 말하면 그들의 참상을 차마 볼 수 없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시성詩聖 두보杜甫의 「석호리石濠吏」, 「병거행兵車行」을 연상케 하는 제재題材다.

이러한 애민·보민·안민·위민에 대한 염원이 곧 맹자가 말한 ‘왕도’에 이어지므로, 모두에 든 논어 장구의 뜻에 따르면 바로 ‘시어정施於政’이 된다. 결국 하서 선생은 ‘왕도’를 천명하는 시로써 초려를 나서지 않고 백성의 감화 교화를 통한 사실상 정사를 봄과 다름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수 필자는 금호고등학교장, 울산김씨 대종회장을 역임했으며, 『전라도사람들』 6권을 저술하였다.

박회양부薄淮陽賦에 나타난 하서 김인후의 비분悲憤

김상집(전남대 고전한문 번역 박사과정 수료)

들어가는 말

김인후의 관직생활 중 가장 고독하고 괴로웠던 시기는 아마도 기묘사화에서 을사사화로 이어지는 사화의 광풍이 불던 때가 아니었을까 싶다. 당시 도학정치를 주창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조광조가 훈구파의 탄핵으로 죽임을 당하던 즈음이었다. 김굉필의 제자인 김안국에게 소학을 공부했던 김인후는 출사하자마자 기묘명현들의 신원伸冤을 위해 진언을 마다하지 않았다. “예로부터 선치善治를 하는 군주는 어진 인재를 가까이 하며 선비의 풍습을 바르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어진 인재를 가깝게 하면 임금의 도와 백성을 교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선비의 풍습을 바르게 하면 사람이 지킬 뉘엿한 윤리가 밝혀져 세상을 두터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은 김인후의 상소를 수용하지 않는다. 김인후는 사직을 요청하고 아버지 봉양을 빌어 옥과 현감으로 갔다고 알려져 있다. 시절이 하수상하고 정쟁의 피비린

내 나는 틈바구니에서 그는 그만의 방식으로 ‘칩거’를 택했다고 알려져 왔던 것이다. 아마도 김인후의 삶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은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시강원 설서로 인종을 가르치던 때가 아닌가 싶다. 인종은 스승인 김인후에게 목죽도를 선물할 만큼 하서를 존경하고 아꼈다. 직접 목죽도를 하사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필암서원 내의 경장각은 인종이 하사했던 목죽도를 보관하던 공간이다. 그러나 인종은 보위에 오른 지 8개월 만에 병사하고 만다. 벼슬을 그만 둔 김인후는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 정진과 후학 양성에 진력을 다한다. 김인후는 1600여 수의 시를 지었다. 저서로 『하서집』, 『태극도설』, 『서명사천도』 등을 남겼는데 선비의 인품과 기상, 절개 등이 정치한 언어로 형상화돼 있다. 후일 정조는 “학문과 절의와 문장에 있어서 이를 다 갖춘 사람은 김인후 한 사람 뿐이다”며 그의 식견과 됃됨이를 칭송했다.

지금까지는 김인후가 출사한 지 3년 만인 종종 38년(1543) 6월에 마침내 부수찬이 되자마자 바로 홍문관에서 소장箚子을 올리고 바로

7월에 경연석상에서 두 번에 걸쳐 기묘명현의 신원을 거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2월에 아버지 봉양을 빌어 옥과 현감으로 내려갔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김인후가 8월에 귀향할 때 쓴 이황의 송별시와 김인후의 박회양부 양부를 읽어 보면, 김인후는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옥과 현감으로 가기를 자청했다기보다는 기묘명현의 복위를 요청하는 김인후를 척신 윤원형 일파의 음모로 중종이 옥과현감으로 내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살펴보자.

이황의 송별시와 김인후의 박회양부

이황의 송별시에는 수찬 김후지金厚之가 휴가를 얻어 귀성하는 것을 전송한 시가 있는데,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허락을 받고 간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送金厚之修撰乞假歸覲仍請外補養親 恩許之行]

.....

내가 지난날 그대와 더불어 성균관에서 노닐 적에

我昔與子遊泮宮

한마디로 도가 맞아 기꺼이 서로 사귀었지

一言道合欣相得

그대는 세상살이가 빈 배와 같음을 알았고

君知處世如虛舟

나는 저력樗櫟처럼 쓸모없다 믿었지

我信散材同樗櫟

부귀영화가 나에게서 뜬구름과 같은 것

富貴於我等浮雲

우연히 얻었을 뿐 내가 구한 바 아니었네

偶然得之非吾求

가을바람 소슬하게 한강 물에 부는데

秋風蕭蕭吹漢水

바닷길 산길 천리에 그대 먼저 가네 그려

海山千里君先去

.....

이황은 7월, 성균관사에 겸승문원교감 시장원필선侍講院弼善에 임명된다. 8월, 조산대부朝散大夫가 되고 사간원 사간으로 승진되었으나, 병으로 임명되지 못하고, 사복시 침정에 제수된다. 그리고 10월, 성균관 사성으로 임명된다.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 성묘한 다음 11월, 예빈시 부정禮賓寺 副正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는다. 이황이 한양에 돌아온 것은 다음해 2월로 홍문관 교리로 불러 조정에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황은 김인후가 옥과 현감으로 조보에 떴을 때인 12월에는 조정에 없었다.

이로 보아 이 시는 이황이 7월 시장원필선侍講院弼善에 임명되고 8월 병을 얻기 전에, 김인후가 8월에 맥동으로 귀향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때 쓴 시임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 이황은 '바닷길 산길 천리에 그대 먼저 가네 그려(海山千里君先去), 떠돌이 벼슬썸이야 치자면 미세한 먼지(儻來軒冕如塵微)' 라고 하면서 중종이 기묘명현의 신원을 수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자신도 곧 떠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반면 김인후는 박희양부에서 『사기』 급암전에 나온 급암의 처지를 빗대어 중종이 자신을 옥과로 내친 데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완사緩辭를 늘어놓아 위로한 것은
어찌 속에서 나온 진담이겠오.
내직을 말기 잡고 외직 말김은
그 잠재한 의도를 보여준 걸세.
임금마음 바로잡는 다만 그 일념
벽지에 버려지고 말았군 그래.
십년 세월 그대로 누워만 있고
한 번도 사환賜環을 못 보았구려
군君이 어찌 회양을 경시했겠오
임금이 바로 군을 박대한 거지.

김인후는 박희양부에서 ‘군이 어찌 회양을 경시했겠오. 임금이 바로 군을 박대한 거지.’라고 하면서 자신을 옥과 현감으로 내친 데 대해 급암의 예를 들어 노골적으로 중종에게 울분을 토하고 있다.

김인후는 왜 아예 처사를 자처하며 죽림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또 군이 어버이 공양을 빌어 옥과 현감 자리에 있으면서도 만족을 하지 않고 울분을 토했을까? 혹시 옥과 현감 자리는 김인후가 원해서가 아니라 중종이 김인후의 강직한 언행이 조야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한직인 옥과 현감으로 내친 것은 아닐까?

김인후는 왜 중종에게 밋게 보였을까. 김인

후는 왜 홍문관 수찬이 되자마자 기묘명현의 신원을 차자로 올리고 또 군이 경연장에서 중종의 회를 돈구어가면서까지 두 번이나 목숨을 걸고 기묘명현의 신원을 얘기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기묘사화의 배경이 된 조광조의 개혁과 좌절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이를 살펴보자.

조광조의 개혁과 좌절, 기묘사화

1506년 9월 2일 훈구대신들이 중심이 되어 연산군을 추방하게 되는 데 이를 중종반정이라 한다. 이때 130명이 넘는 반정공신들이 훈구공신으로 책봉되었는데, 중종 전기에는 훈구공신들이 실권을 장악했으나 중종은 집권 10년이 지나면서 이들에 대항할 세력으로 사림파를 서서히 등용하게 된다.

정권을 장악했던 중종반정의 주역들이 죽자 중종은 점차 임금으로서의 힘을 얻기 시작했다. 중종은 부왕인 성종의 뜻을 이어 왕도정치를 구현하고자 했다. 왕도정치란, 위로는 임금부터 아래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유교의 가르침을 받드는 유교사회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왕도정치가 펼쳐지는 사회는 곧 유교적 이상사회가 구현되는 것을 의미했다. 성리학을 국시로 삼던 조선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사회가 바로 왕도정치가 구현되는 사회였던 것이다. 중종은 왕도정치를 위해 개

혁의 일환으로 조광조 등의 사림파들을 다시 중용하기 시작했다.

조광조의 개혁

조광조는 무오사화 때 부관참시를 당했던 사람파의 거두 김종직의 맥을 이은 인물이다. 어렸을 때 함경도에 관리로 나간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무오사화로 인해 함경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김종직의 제자 김굉필을 만나 김굉필에게서 학문을 배운 것이다. 사람파의 거물이었던 김종직과 김굉필의 학문을 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광조는 이미 사람파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다.

그 후 조광조는 1510년(중종 5년)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에 나가 중종의 총애를 받으며 개혁을 주도했다. 조광조는 이를 위해 소격서를 폐지하고 향약을 보급하고 현량과를 도입하는 등 개혁정책을 펼쳤지만, 이 과정에서 개혁의 종착점이 달랐던 중종과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소격서란 도교道敎의 신인 옥황상제와 일월성신 등을 모시고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업무를 맡은 조선의 관청이었다. 그러나 조광조와 사람파의 집요한 요구에 밀려 1518년 중종은 결국 소격서를 폐지했다. 소격서 폐지는 조선을 유교이상사회로 한발 가까이 다가서게 만들었지만, 중종과 조광조의 신뢰에 금이 가는 사건이기도 했다.

소격서를 폐지한 조광조는 이듬해인 1519년부터 향약鄕約 보급을 주도했다. 향약이란

향촌의 유교적 자치규약으로, 유교적 윤리에 입각한 지방공동체의 생활지침이었다. 당시 지방에서는 이시애의 난으로 한때 폐지되었던 유향소 등의 자치기구가 다시 활성화되어 지방의 양반들이 조정의 훈구세력과 결탁해 양민들을 수탈하는 등의 비리가 횡행하고 있었다. 조광조의 향약은 유향소를 대신하는 자치기구로 유향소의 비리를 척결하고 향약의 4대 강령으로 알려진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 등의 유교 윤리를 향촌사회에 권장함으로써, 향촌생활을 안정시키고 유교 윤리를 보급하려는 목적이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향약의 보급을 통해 지방사림의 세력강화를 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조광조는 지방의 사림이 주축이 되어 향약을 주도함으로써, 훈구세력과 결탁한 유향소 등을 견제하는 새로운 향촌자치기구를 구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지방의 자치권을 빼앗기게 된 훈구세력과 사람파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고, 훗날 기묘사화로 조광조와 사림이 제거되자 향약도 곧 폐지되고 말았다. 그 후 이황, 이이 등이 조선의 현실에 맞는 향약을 다시 제정해 이 새로운 향약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조광조의 대표적인 개혁으로 현량과賢良科의 도입이 있다. 현량과賢良科란 과거시험 대신 천거를 통해 관리를 뽑는 제도이다. 조광조는 당시 과거가 글재주만을 보고 관리를 뽑는 문제가 있고 또 과거 자체의 폐단도 크다는 문

제를 들어, 천거를 통해 관리를 뽑는 현량과 실시를 주장해, 1519년(중종 14년) 훈구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관철시켰다. 현량과는 각 관청에서 인재를 천거한 뒤 임금이 이들을 면접하여 관리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조광조는 이를 통해 사림세력을 대거 관직에 진출시켰다.

그러나 이 역시 기묘사화 이후에는 폐지되었다.

조광조는 일련의 개혁을 통해 이상적으로는 유교사회 구현에 다가갔고 현실적으로는 훈구파를 약화시키고 사림파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조광조는 더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토지제도와 노비제도를 고치려 했고 또 중종반정의 정국 공신들이 잘못 책봉되었다는 이유로 공신들의 위훈삭제를 주장했다.

기묘사화

조광조가 개혁을 추진했던 기간은 고작 5년 정도였다. 이 짧은 기간에 조광조는 자신의 개혁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조광조는 훈구세력은 물론이고 임금인 중종마저도 심하게 몰아붙였다. 그 결과로 조광조와 사림세력은 훈구세력과 중종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조광조가 중종반정 정국공신들의 위훈삭제를 주장하자 마침내 중종과 훈구세력은 조광조와 그 일파를 제거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이다.

조광조와 사림이 주장한 위훈삭제(爲勳削除

란, 중종반정으로 책봉된 정국공신 중에 공이 없는 자들이 공신으로 책봉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공이 없는 공신들의 훈작을 삭제하고 그들의 공신전을 몰수하자는 말이었다. 이 주장은 당시 반정세력이 주축이었던 훈구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반정으로 왕이 된 중종 역시 반정공신들의 훈작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광조와 사림은 끈질기게 위훈삭제로 요구했고, 중종도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그때 남곤, 심정, 홍경주 등의 훈구파가 조용히 파란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중종의 마음이 이미 조광조에게서 떠난 것을 알아채고 ‘주초위왕(走肖爲王)’ 사건을 조작한 뒤 야심한 밤에 중종을 찾아가 만났다.

주초위왕(走肖爲王) 사건이란 1519년(중종 14년) 훈구파들이 후궁을 시켜 대궐의 나뭇잎에 꿀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란 글을 써 벌레들이 갉아먹게 한 다음 그 잎을 따서 중종에게 보여준 사건을 말한다. ‘주(走)’와 ‘초(肖)’를 합자하면 ‘조(趙)’자가 되므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란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으로, 결국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누가 봐도 조광조를 음해하는 세력의 모함인 것을 알 수 있는 일이었지만, 중종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중종 역시 이미 조광조를 제거할 결심을 굳히고 있었던 것이다.

조광조와 사림이 위훈삭제를 주장한지 며칠 되지 않아 남곤, 심정, 홍경주 등이 심야에

중종을 면담하고 그 자리에서 조광조와 사림 몇 명을 옥에 가두라는 중종의 명이 떨어졌다. 조광조와 사림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만 것이다. 당시 윤자임이란 사람은 궁에서 숙직을 하다가 옥으로 끌려가기까지 했다.

중종은 조광조 등을 서둘러 옥에 가두고난 뒤에야 의금부에 이들의 죄를 추고하라는 명을 내렸다. 명백한 죄가 있어 잡아들인 것이 아니라 일단 잡아들이고 죄를 찾으라는 명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조광조 등의 죄목이 올라왔다. 실록에 적힌 이들의 죄는 이랬다.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은 서로 붕비朋比를 맺어, 저희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鬻勢로 서로 의지하여 권요權要의 자리를 차지하고, 후진을 유인하여 궤격諷激이 버릇이 되게 하여, 국론이 전도되고 조정이 날로 글러가게 하매,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였으니, 그 죄는 다 참斬하고 처자를 종으로 삼고 재산을 관에 몰수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세력을 만들어 조정을 망쳤으므로 사형에 처하고 가족은 종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구체적인 죄목이 하나도 없이 두리몽실하게 죄를 주고 죽이겠다는 것이다. 중종과 훈구세력 간에 이미 조광조를 죽이기로 암약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국의 사

림과 유생들이 조광조의 억울함을 상소하는 일이 벌어지자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들을 일단 유배형에 처했다. 이때 조광조는 전라도 회순의 능주라는 곳으로 유배를 떠났다.

그러나 중종은 조광조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조광조를 잡아들인 지 꼭 한 달만에 중종은 능주로 사약을 보내 조광조를 죽였다. 조선을 대표하는 개혁적인 정치인이었던 조광조는 그렇게 허무하게 서른여덟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유배되었는데 이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이다.

조광조는 영문도 모른 채 잡혀 들어갔고 또 영문도 모른 채 사약을 받고 죽어야 했다. 중종은 조광조를 총애해서 개혁의 동지처럼 여겼지만 결국 조광조를 버리고 말았다. 이는 중종이 나약한 군주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광조의 개혁이 너무 급진적이고 과격했던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 조광조의 개혁은 그 내용도 급진적이었지만 실행방식이 너무 과격했다. 심지어 왕을 욕박지르듯 몰아붙이기도 해서 중종의 마음이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종의 변심은 교묘했다. 조광조를 죽이기 불과 몇 달전 조광조가 병으로 사직을 청하자 어의를 보내 조광조의 병을 돌보게 하고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중종의 변심을 사관은 이렇게 실록에 기록했다.

전일에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고 하루에 세 번씩 뵈었으니 정이 부자처럼 아주 가까울 터인데, 하루아침에 변이 일어나자 용서 없이

엄하게 다스렸고 이제 죽인 것도 임금의 결단에서 나왔다. 조금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전일 도타이 사랑했던 일에 비하면 마치 두 임금에게서 나온 일 같다.

기묘사회로 조광조가 죽자 그동안 조광조가 이루어놓은 개혁은 모두 폐기되었다. 소격서를 부활하고 향약과 현량과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조정은 다시 훈구세력이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끼리 알력과 암투를 일삼아 종종 때에는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어졌다.

하서 학문의 연원

1517년(중종 12년) 8살 때 조광조의 숙부 조원기(趙元紀)가 전라 관찰사로 있을 때 그를 보고 기특히 여기며 더불어 시를 짓는데, 그의 뛰어난 재주와 높은 수준의 글 솜씨를 보고 「장성신동(長城神童) 천하문장(天下文章)」이라 칭찬했다.

1518년(중종 13년) 복재 기준(奇遵)이 남녘 시골에 내려왔다가 그의 이름을 듣고서 데려다 보고 칭찬을 하며 ‘참으로 기특한 아이다. 마땅히 우리 세자(世子)의 신하가 되겠다.’고 했다. 그리고 ‘내사필(內賜筆) 한 자루를 선물로 주었다. 그는 그 뜻을 알고 항상 잘 간직하고 보배로 삼았다.

1519년(중종 14년) 10살 때 호남 관찰사로

와 있던 김안국(金安國)을 찾아뵙고 『소학(小學)』을 배웠는데, 김안국은 그를 기특히 여기며, ‘이는 나의 소우(小友)이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하은주 시대 「삼대(三代)의 인물」이라 일컬었다.

김안국은 조광조와 같이 김굉필의 제자이고, 하서는 또 김안국의 제자이니, 하서는 우리나라 유학 곧 도학의 정맥에 자리하고 있다.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김안국으로 이어지는 유학의 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김안국에게서 소학을 전수받게 된 지 겨우 몇 달 뒤 곧 중종 14년 11월에 경천동지할 사건이 벌어졌다.

기묘사회다.

얼마 전에 퇴었던 기준은 귀양 가서 미구에 사사되고, 스승 김안국은 파직되어 이천으로 내쫓겼다. 10세 하서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그리고 당시 도학의 원리이자 교과서로 가장 중요시한 『소학』을 김안국에게서 전수받은 일이 일생 동안의 진로 고비고비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기묘사회의 중심인물인 조광조도 김굉필의 제자로 『소학』의 신봉자였다. 그가 체득한 『소학』의 이념이 그의 정치적 개혁의 중요한 모티브였다. 결국 기묘사회는 『소학』의 이상을 현실정치에 구현하려던 『소학』도들에 대한 숙청이었던 것이다.

1522년(중종 17년) 시를 잘 짓던 그는 스스로 「시를 배우지 아니하면 설 수가 없다.(不學詩無以立)」는 말을 성인의 교훈으로 생각하

고, 『시경詩經』을 천 번이나 탐독하였다.

1526년(중종 21년) 송순宋純을 찾아가 뵙고 수업하였으며, 그 후로도 계속 왕래하며 문안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1527년(중종 22년) 18세 때 기묘사화를 만나 화순 동북에 유배 중이던 신재 최산두崔山斗를 찾아가 학문을 강론했는데, 신재는 깊이 탄복하여 매양「추수 빙호秋水 氷壺 (가을의 맑은 물과, 얼음을 담은 옥항아리 같다)」라고 일컬었다.

또 나주 목사로 좌천되었다가 병으로 사직하고 고향 광주 서창에 돌아와 있던 박상朴祥을 찾아뵙고 학문의 폭을 넓혀 나갔다.

이와 같이 하서는 어린 시절부터 시문을 잘 하여 명성이 전역에 떨쳤으며, 기묘 사립의 조원기·기준·박상 등의 아낌을 받고,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던 김인국·최산두·송순 등에게 도학과 문학을 배웠다.

반궁泮宮에서 이황과의 만남

22세 때(중종 26, 1531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김인후는 24세(중종 28)에 성균관에 입학한다. 이때 마침 이황도 27세 때 입관했다가 중퇴하고 33세 때 재입관하여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묘사화를 겪은 지 겨우 14년밖에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사슴이 땅에 떨어져 경전공부보다는 놀이와 사장에나 관심을 쏟

고 『소학』을 끼고 다니는 일조차 거리낄 정도였다. 연산조에서 불과 10년 사이에 두 번이나 사회를 겪고 전멸 지경에 이른 사람이 중종반정으로 겨우 살아나다가, 14년 만에 기묘사화의 된서리를 또 맞은 것이다. 미래의 국운을 좌우할 나라의 심장부가 활력을 잃고 침체의 늪에 빠져, 뜻있는 사람이면 탄식과 우려와 상심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의 상황을 『퇴계언행록』에서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기묘의 변을 겪은 뒤라 사람들(관생)이 모두 학문을 거리고 놀이를 일삼는데, 선생(퇴계)은 스스로 가다듬어 새로워지며 언행을 법도에 따랐다. 보는 사람들(관생)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는데, 오직 김하서 한 분만이 함께 교유하였다.

그러나 이황의 성균관 유학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이황은 「반궁泮宮」이라는 시에서 “...날마다 공당에서 실컷 잘도 노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성균관의 학풍에 환멸을 느낀 듯 미구에 귀향하고 만다.

200명의 관생 중에서 이황의 귀향을 가장 아쉬워한 이는 물론 김인후다. 이때 김인후는 시를 지어 송별하였다. 그리고 중종 36년(1541) 여름에 김인후와 이황은 함께 사가독서의 은전을 입고 호당에서 재회한다. 이때 같이 뿔혀 들어온 동기 12인이 함께 계를 맺고 『호당수계록』을 작성하여 남겼는데 모두 뒤에

세상을 놀라게 할 인물들이다. 몇 사람 예를 들면, 추파 송기수, 송재 나세찬, 퇴계 이황, 금호 임형수, 임당 정유길 등이다.

그리고 김인후는 출사한 지 3년(중종38년, 1543년) 만에 홍문관박사 겸세자시강원설서로 승진하였다. 설서는 정7품의 낮은 직위지만 장차 왕위에 오를 세자의 교육에 종사하는 중책이다. 특히 중종은 세자를 보도(輔導)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하서에게 맡겼다. 그해 6월 21일에 홍문관부수찬 지제교 겸경연검토허관(정6품)으로 승진하였다.

기묘명현의 신원(伸冤)

김인후는 마침내 부수찬이 되어 발언에 무리가 실리자마자 바로 홍문관에서 소장(籥子)을 올렸다. 그 해 1월에 일어난 동궁 화재사건의 규명과 기묘명현의 신원이다. 기묘·신사사화 후로 사기가 바다에 떨어져 조신들은 말과 글을 삼가며 살얼음을 밟듯 몸을 사리고 무사안일만을 바라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세자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인 동궁 화재사건의 규명을 요구하고 여기에다 중종이 직접 윤허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혹하게 죽어나간 기묘명현의 신원을 올린 것이다.

그리고 7월에 이황이 성균관사에 겸승문원교감 시강원필선(侍講院弼善)에 임명되었을 때인 7월 20일과 22일 경연석상에서 재차 기묘명현의 신원을 말한 것이다. 그럼 경연석상에서

의 발언을 실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실록에는 1543년(중종 38년) 7월 20일 기묘명현 복위를 건의한 데 대한 중종의 질문이 있고 이에 답한 승지 홍섭에 대한 사관의 평가가 있다.

승지 홍섭(洪運)에게 전교하기를,

“김인후가 아뢰 전말을 잘 듣지 못하였는데, 과연 어느 사람을 가리킨 것인가?”

하니, 홍섭이 회계하였다.

“신도 미처 잘 듣지 못하였으므로 사관에게 물으니, 본심이 나라를 속이지 않았다는 것은 기묘년 사람(조광조(趙光祖) 등)을 가리킨 것이라 합니다.”

사신은 논한다. 위에서 홍섭에게 물은 것은 참으로 그것이 어느 사람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다. 아랫사람의 뜻을 살피려고 끌어대어 물은 것인 줄을 어찌 알겠는가. 어찌면 위의 마음을 다시 밝힐 수도 있었고 사림(士林)의 분하고 답답한 뜻을 풀 수 있었으니, 홍섭으로서 는 물음에 따라 분명히 가려서 곧바로 아뢰어야 옳은데, 홍섭도 ‘신도 미처 잘 듣지 못하였다.’ 하였으니, 그 흐릿하게 말하여 스스로를 보전하려는 생각이 교묘하거니와, 위의 물음을 저버리는 것은 어찌하는가. 후설(喉舌)의 벼슬(승지)을 맡은 자가 본디 이러한 것인가? 감히 곧바로 아뢰지 못하였을 뿐이 아니라, 또 사관에게 물어서 아뢰었다면 이것은 회계하는 말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으로 하려 하지 않고 남에게서 나온 것으로 하려 한 것이다.

저 사관은 어떤 사람인가? 홍섬이 물더라도 저 사관은 알릴 것 없는데 알렸으니, 사관이 사관답지 않다.

홍섬은 조광조의 제자로 한때 김안로를 탄핵하다가 유배된 적도 있는 기골 있는 관리였는데, 워낙 민감한 문제라 잘못하면 화를 입을까 두려워 노회한 관료답게 사관을 끌어대어 둔사를 놓한 것이다.

그리고 이틀 뒤인 22일 실록의 기록이다. 이번에는 중증이 이틀 전에 잘 듣지 못해 홍섬에게 묻은 것을 지적하며 자신의 목소리가 작아서 황공하다며 하서는 기묘명현의 신원을 재차 똑똑히 말하고 있다. 아마도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을 외치며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6월 항쟁의 성명서를 낭독하는 모습처럼 당당하였으리라!

1543년(중종 38년) 7월 22일 기묘명현 복위를 재차 건의. 실록에 김인후·이언적이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데에 유념할 것을 건의하다

주강畫講에 나아갔다. 검토관檢討官 김인후 金麟厚가 아뢰기를,

“전에 조강朝講에서 신의 말소리가 작아서 분명히 아뢰지 못하였으므로 지극히 황공합니다. 기묘년 사람은 한때 한 일이 죄다 옳지는 못하나, 그 본심은 터럭만큼도 나라를 속인 것이 없는데도 마침내 무거운 죄를 입었습니다. 그 뒤에 죄 지은 사람 중에는 대역부도 大逆不道하여 죽어도 죄가 남을 자라도 세월이

오래되어 혹 복직復職된 자가 있는데, 기묘년 사람은 오히려 상은上恩을 입지 못하니, 신은 홀로 온편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뿐이 아니라, 그들이 한때 숭상하던 『소학』·『향약 鄉約』의 글도 모두 폐기하고 쓰지 않습니다. 『소학』·『향약』은 자양紫陽의 주자朱子와 남전藍田의 여씨呂氏의 글이며, 주자여씨는 다 성현聖賢인데, 어찌 그 글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의 선비는 속상俗尙에 빠져서 읽어서는 안 될 글이라 하여 버리니, 더욱 온편하지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기묘년 사람을 아주 불쾌不執로만 논하므로, 지금까지도 이런 말은 사람들이 다 촉범觸犯이라 생각하여 꺼립니다. 그러나 신의 소견은 이러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마음을 쓴 것이 그르지 않다 할지라도 장차 나라를 그르치는 일이 있을 것이므로, 조정이 그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소학』·『향약』을 사람 때문에 폐기할 수는 없다.”

하였는데, 특진관 이언적李彦迪이 아뢰었다.

“근래 강상綱常의 이변이 거듭 나타납니다. 무지한 짐승일지라도 사랑의 천성은 없지 않으므로, 효경梟獍이 아니면 어미를 범하는 것이 없는데, 지금 사람들 중에는 도리어 짐승만도 못하여 부자형제 사이에도 천륜을 끊는 자가 흔히 있으니, 이것은 일조 일석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사림士林의 화禍[기묘년 사람을 가리킨다.]가 일어나고부터 인심이 퇴패類

敗하고 풍속이 隳亂하여 사람들이 배우는 일을 하지 않고 음식과 남녀의 욕심만을 알기 때문에 비상한 이변을 자주 일으키니, 만세 뒤에 사책史冊 가운데에 어찌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조종 때에는 교화를 밝히고 인륜을 두텁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 취재取才 때에도 『소학』을 모두 강講하였고,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번역하고 또 중외中外에 반포하여 권려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여 다스림에 누를 끼치는 이변이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오로지 학문에 힘쓰고 도타이 사유四維를 숭상하였으므로 그 전해온 풍속이 크게 변하는 데는 이르지 않았으나, 사림의 화를 겪고부터는 사람들이 다 교화를 말하기를 꺼려서 사습士習이 글러지고 풍속이 밝지 않기가 한결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쌓인 폐단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칠 수는 없으나, 위에서 조종을 본받아 교화를 밝히고 인륜을 두텁게 하는 데에 유념하신다면, 아랫사람이 저절로 보고 느껴 변화하여 날로 착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종의 재위기간이 오래 되자 차차 왕권이 안정되고, 학덕이 높은 사람이 많이 조정에 진출하여 훈구·공신파와 균형이 잡혀갔다. 이에 중종은 김인후의 소장箚子과 경연석상에서의 분명하고 단호한 발언에 대해 기묘명현의 신원 문제는 눈을 감고, 경연에서 『소학』을 강할 수 있는 길만 터준 셈이다.

그리고 김인후는 8월 장성 맥동으로 내려 온다. 이때 이황은 송별사에서 ‘바닷길 산길 천리에 그대 먼저 가네 그려(海山千里君先去)’, ‘떠돌이 벼슬쫓이야 치자면 미세한 먼지(儻來軒冕如塵微)’ 라고 하면서 중종이 기묘명현의 신원을 수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김인후와 뜻이 같아 자신도 곧 떠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박회양부에 나타난 김인후의 비분

김인후는 박회양부 첫머리에서 ‘가시 숲은 봉황새가 깃들 곳이겠는가.(축한 유비가 방통을 운양현령으로 삼자 제갈량이 방통은 백리를 다스릴 정도의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고사를 인용하여)백리는 대현大賢의 길 아닌데/어찌하여 회양 한 구석 땅에/급암의 고고한 행보가 접혀졌고.’ 라며 옥과 현감으로 내친 자신의 모습을 『사기』에 나온 급암의 처지와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기』에 의하면, 급암은 하남을 지나다 만여 가구가 수해와 한해를 당하여 부절符節로써 하남군의 곡식 창고를 열어서 현지의 빈민들을 긴급하게 구제했는데, 부절을 반환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위조한 죄를 받고자 청하였다. 무제는 이 같은 급암의 처사를 어질게 여기고 그의 죄를 용서하고, 형양砀陽의 현령으로 발령하였다. 그러나 급암은 현령으로 발령을 난 것을 치욕스럽게 여기고 병을 핑계로 버

슬에서 물러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무제가 이 소식을 듣고 곧 다시 그를 조정으로 불러서 중대부中大夫로 임명했다. 급암은 여러 차례 간절한 직언을 올려서 조정 내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동해東海의 태수로 전출되었다.

급암의 인성은 거만하고 예의 격식을 잘 차리지 않았고, 남의 면전에서 그대로 반박하기도 했는데,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다. 자기와 의기투합되는 자에게는 잘 대우했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아예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다.

선비들 또한 이 때문에 그에게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 그러나 급암은 학문을 좋아하고 의협심과 절조를 중히 여기며 일상생활에서 품행도 고결했다. 입조하여 직언하기를 좋아했는데, 여러 차례 무제와 대신들의 체면을 무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한무제가 오수전五銖錢 위폐 때문에 은거하고 있는 급암을 불러들여 회양군의 태수로 삼으려고 했다. 급암은 옳드려 사양하며 태수의 인장印章을 받지 않았으나, 황제의 조서가 여러 차례 강압적으로 내려지자 할 수 없이 명에 따랐다.

김인후는 박회양부에서 급암이 황제의 조서가 여러 차례 강압적으로 내려지자 할 수 없이 명에 따랐던 것을 ‘임금이 바로 군을 박대한 것(帝待君之斯薄)’이라며 자신이 옥과 현감으로 간 것과 일치시키고 있다. 김인후가 경연석상에서 기묘명현의 신원을 아뢴 것은 7

월 20일, 22일이고, 12월에 옥과 현감에 제배되었으니 이 다섯 달 사이에 아마도 많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혹시 『사기』에 나온 ‘공손홍과 장탕이 내심으로 더욱 급암을 원망했으며, 무제 역시 급암을 기꺼워하지 않았으므로, 틈만 나면 계기를 만들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동궁 화재사건의 규명과 기묘명현의 신원을 요구하는 김인후를 소윤의 무리들과 종종도 마찬가지로 틈만 나면 죽이고 싶지는 않았을까?

중종 38년(1543년) 6월에 부수찬이 되자마자 홍문관에서 소장箚子을 올리고 바로 7월에 경연석상에서 두 번에 걸쳐 기묘명현의 신원을 아뢴 만큼 당당했던 김인후가 호시탐탐 왕권을 노리는 소윤의 무리들과 기묘명현의 사사를 명한 중종의 탄압을 피하고자 구차하게 어버이 봉양을 명분으로 옥과 현감을 자청했을까?

그러나 김인후는 이미 8월에 장성 맥동으로 내려갔고 이황 또한 송별사에서 기묘명현의 신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김인후처럼 조정을 떠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김인후는 박회양부에서 한무제가 급암을 회양 태수로 보낸 것을 ‘임금이 바로 군을 박대한 거지’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는 곧 중종이 자신을 옥과로 내친 데 대한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김인후가 기묘명현의 신원을 아뢴 7월부터 옥과 현감으로 제배되는 12월까지 이 다섯 달 사이에 급암처럼 교서가 여러 차례 강압적으로 내려지자 할

수 없이 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희양부는 유교적 이상사회가 구현되는 왕도정치를 꿈꾸었던 김인후가 동궁 화재사건을 규명하여 인종을 보위함과 동시에 기묘명현을 신원하고자, 상소劄子를 올리고 경연석상에서 두 번에 걸쳐 목숨을 걸고 진언하였으나 도리어 옥과 현감으로 내친 데 대해 『사기』의 급암을 빌어 울분을 토로한 시라고 볼 수 있다.

박희양부 薄淮陽賦

가시 숲은 봉황새가 깃들 곳이 아니며

枳棘非鸞鳳之棲

백리는 대현大賢의 길 아니고 말고

百里非大賢之路

어찌하여 회양의 한 구석 땅에

夫何淮陽之一隅

급장유汲長孺의 높은 걸음 접혀졌는고.

屈長孺之高步

이 사람의 충직을 생각해 보면

思夫人之忠直

진실로 사직社稷의 양신良臣이로세.

誠社稷之良臣

수령되어 동해東海로 나갈 적부터

自東海之分符

정치 잘해 백성에게 만족했다오.

己善治之洽人

권도權度를 써 창곡倉穀을 풀어 준 것도

及矯制而發倉

역시 크게 빈민을 구제한 거라.

亦大濟於貧民

황제는 용서하고 작壽 더했지만

帝寬假而加壽

내심에는 혹 불만이 끼었을지도.

或內心之非然

하물며 욕심 많다 한 마디 말엔

矧多欲之一語

상노의 마음 그 어찌 편했겠는가.

豈上心之所便

관冠 아니 쓰고선 못 보는 일은

至不冠而不見

어진 이께 정성 없다 이틀까 봐서

恐未誠於尊賢

임금에게 거림을 받는 존재라

既於君而見憚

못 비방이 어울려 모여들밖에.

又衆謗之交搆

분紛·청靑은 증용되어 용사를 하고

紛靑貴重而用事

홍弘·탕湯은 괴임 받아 좌우에 붙어

弘湯寵任而左右

모두가 겉 다르고 속 다른 지라.

俱面是而腹誹

시든 잎이 서리를 기다리는 형세

勢冬葉之待霜

허물을 고치기에 인색한 것은

惟吝過而憚改

인정의 정상인양 생각하거든

是人情之所常

조석의 보필이야 즐거하랴만
 肯朝夕而輔台
 중랑中郎은 일명一命이라 가볍더라도.
 輕一命於中郎
 오히려 연연하여 희망을 갖고
 猶眷戀而有冀
 교목喬木을 바라보며 서성대누나.
 覽喬木而徬徨
 이야말로 충성의 북바침이지
 儘忠誠之內激
 정을 꾸며 은혜 구걸 절대 아닐세.
 非矯情而乞恩
 완사緩辭를 늘어놓아 위로한 것은
 設緩辭而慰解
 어찌 속에서 나온 진담이겠오.
 豈由中之實言
 내직을 맡기 않고 외직 맡김은
 不任內而任外
 그 잠재한 의도를 보여준 걸세.
 自可見其微意
 임금마음 바로잡는 다만 그 일념
 使格君之一念
 끝내 벽지에 버려지고 말았네.
 終委廢於僻地
 십년 세월 그대로 누워만 있고
 臥十年而不起
 한 번도 불러들임 받지 못했네.
 環未見夫一賜
 군君이 어찌 회앙을 경시했겠오
 君非薄乎淮陽

임금이 바로 군을 박대한 거지.
 帝待君之斯薄
 행어나 하느님이 연수를 빌려
 儻皇天假之年兮
 운대輪臺의 자책에 미쳤드라면
 及輪臺之自責
 거의 다시 등용을 만나게 되어
 庶更致夫登庸
 평소 바라든 뜻을 이뤘을 텐데.
 遂志願於平昔
 소주少主를 보좌하고 성城 지킴에는
 至輔少而持盈
 진실로 군의 장점이 아니던가
 諒惟君之所長
 오작五柞에서 고명願命하던 그 날만 해도
 伊五柞之願命
 광광霍光에게 다 맡기진 않았으리라.
 必不專任夫霍光
 저 아내와 맘 통하여 화禍 부른 일은
 彼陰妻而媒禍
 비루하게도 군이 어찌 이 짓을 하리
 陋矣夫君豈爲是
 군을 기용 못한 제帝를 내 허물하고
 吾既咎帝之不用君
 또 군의 이른 죽음 한탄하노라.
 又重以恨夫君之早死也

급암열전汲黯列傳(사마천 『사기열전』 제60)

급암은 한무제 면전에서 늘 직언과 직간直諫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한무제는 때로는 얼굴 빛이 변하기도 했고, 묵연히 노하기도 했고, 꺼리고 두려워 의관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만남을 피하기도 했다.

아침을 일삼는 공손홍과 장탕은 승승장구하여 승상이 되었지만, 이들의 배척을 받은 급암은 한무제의 미움을 사 내직에서 회양태수로 쫓겨 나다가 끝내 부름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는 직간을 좋아하고 충절을 지켜 의義에 죽을 것이어서 그를 유혹하기가 어렵다.”고 평한 회남왕의 말로 사마천은 급암의 인물됨을 평하고 있다.

조선조 유학자 가운데 유일하게 박회양부薄淮場賦를 쓴 분이 하서 김인후다. 하서는 왜 박회양부를 썼을까? 아마도 급암의 처지와 하서가 처한 처지가 비슷했기에 깊이 공감했을 것이다. 윤원형을 비롯한 척신과 간신배들에 둘러싸여 충정어린 직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당시 조정의 정황을 급암의 일생을 끌어와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박회양부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를 연구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급암열전을 여기에 게재한다.

- 편집자 김재수 씀

급암汲黯의 자字는 장유長孺, 복양濮陽 사람이다. 그의 선조는 옛날의 위군衛君에게 충애를 받았고, 암黯에 이르기까지 7세 동안 대대로 경대부卿大夫를 지냈다. 암은 아버지의 보증으로 효경제孝景帝 때 태자의 세마洗馬가 되었는데 엄격함으로 남의 꺼림을 받았다.

효경제가 붕어하고 태자가 왕위에 올랐다. 암은 알현을 청하는 사람이 되었다. 동월東越이 서로 공격하자, 주상主上은 암을 시켜 가서 살피도록 하였으나, 그곳까지 이르지 않고, 오랏나라에 갔다 와서는 “월인이 서로 싸우는 것은 그 습속이 고질적으로 그러한 것이니, 천자天子의 사자使者를 욕되게 하기에는 부족

합니다.”라고 보고했다.

하내河內에 불이 나서 연이어 천여 가가 불탔다. 주상은 암을 시켜 가서 살펴보고 오게 하였다. 암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서인庶人들이 실화하였고, 집들이 잇달아 있어서 모두 타버린 것이니, 근심하기에는 부족한가 합니다. 신이 하남河南을 지나자니, 수재水災와 한해로 인하여 가난한 하남인들은 만여 가구가 근심에 싸여 있고, 혹은 부자가 서로 잡아먹는 형편이었습니다. 신은 삼가 부절符節을 가지고 편의상 하남의 곡식창고를 풀어 빈민을 구제하였습니다. 신은 청컨대, 부절을 바치며 천자의 명령을 거짓 일컬은 죄로 죽임의 형벌을 받겠습니다.”

주상은 어진 처사라 하여 그를 풀어주고, 관직을 옮겨 형양襄陽의 수령으로 삼았다. 암은 수령이 되는 것을 수처로 여기고 병을 칭하고 향리로 돌아갔다. 주상이 듣고 곧 불러서 중대부中大夫 관작을 주었다. 중대부로서 자주 절간切諫하므로, 이 때문에 조정에 오래 있지 못하고 관직이 동해의 태수로 옮겨졌다.

암은 황제黃帝와 노자老子的 도를 배웠다. 그래서 관청을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림에 청정淸靜을 좋아하여 속관과 서기를 골라 위임할 뿐 그 정치는 대체적인 것을 따져 밝혔고, 자질구레하거나 가혹하지 않았다. 암은 병이 많아서 늘 병상에 누워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1년이 지나자 동해는 크게 다스려졌다고 칭찬 받았다. 주상이 이 일을 듣고 그를 불러 주작

도위主爵都尉로 삼고 구경九卿에 나란히 서게 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사무를 다스림에 무위無爲를 일삼을 뿐이지, 대체적인 것을 널리 다루면서도 법률의 구애를 받지 않았다.

암은 위인이 거만하여 인사치레가 적었고,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잘못을 용서없이 힐난했다. 자기 뜻에 합당한 자는 잘 대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참고 보지 못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선비들도 잘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배우기를 좋아하며 유협游俠을 본받아 기개와 절개에 맞게 행동하였다. 평소의 행실이 깨끗하고 직간直諫을 좋아하여 수시로 주상의 안색을 무안하게 했다. 늘 부백傅柏과 원앙袁盎의 사람됨을 흠모하였고, 관부灌夫 정당시鄭當時 종정宗正 유기劉棄와 가까운 사이였다. 그래서 이들과 자주 직간直諫하니 그 지위에 오래 있을 수 없었다.

이때 태후의 동생인 무안후武安侯 분봉을 승상으로 삼았는데, 중이천석中二千石이 와서 배알하여도 분은 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암은 분을 만날 때는 일찍이 절하는 일이 없이 늘 읊을 했다. 바야흐로 천자는 문학을 하는 선비들을 초빙하고자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이러이러하게 하고 싶다.”

암은 이에 대하여 말했다.

“폐하께서는 속으로는 욕심이 많으시면서 겉으로는 인의를 베푸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당우唐虞의 정치를 본받으려고 하십니까?”

주상은 묵연히 노하였고, 얼굴빛이 변하면서 조회를 파하였다. 공경들은 한결같이 암을 위해 두려워했다. 주상은 물러가서 측근들에게 말했다.

“너무 심하구나, 급암의 우직함이.”

여러 신하들 중에 암을 나무라는 사람이 있었다. 암은 말했다.

“천자는 공경公卿을 두어 보필의 신하로 하는 것이다. 신하된 자로서 어찌 그 뜻을 따라 아침함으로써 주상을 불의에 빠지게 하겠는가. 또 이미 그 지위에 있으니 비록 자신을 사랑할지라도 조정을 욕되게 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암은 병이 많아서 앓는지 3개월이 되었다. 주상은 휴가를 내리시기를 여러 번 하였다. 그러나 종내 낫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병이 더하자 장조莊助가 그 때문에 휴가를 청했다. 주상이 말했다.

“급암은 어떤 인물인가?”

조助가 말했다.

“암으로 하여금 직위를 맡겨 벼슬살이를 시킨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젊은 주군을 보필하고, 성城을 지키에 깊고도 견고하게 하며, 초빙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손짓한다고 해서 가지 않는 점에 이르러서는 비록 옛날의 맹분孟賁이나 하육夏育을 자칭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역시 그의 마음을 빼앗아 올 수는 없습니다.”

주상이 말했다.

“그렇다. 옛날에 사직과 존망을 같이하는 신하가 있었지. 암과 같은 사람이 이에 가깝도다.”

대장군 청肅이 궁중에 시립하면 주상은 침상가에 걸터앉아 그를 보았고, 승상 홍弘이 뵈오면 주상은 흑시 관을 쓰지 않은 때가 있었다. 암이 배일할 때에는 주상은 관을 쓰지 않고는 만나지 않았다. 주상이 일찍이 무장武帳에 앉아 있었는데, 암이 나아가 주상에게 아뢰는 일이 있었다. 주상은 이때도 관을 쓰지 않고 있다가 멀리서 암을 바라보고는 장막 안을 피하여 다른 사람을 시켜 그의 아뢰를 받게 하였다. 그를 만나보는 데 있어서 공경하여 예를 갖추는 것이 이와 같았다.

장탕張湯이 장차 올령을 고쳐 정하려는 일로 해서 정위廷尉가 되었다. 암은 때때로 탕을 질책하여 주상의 면전에서 말했다.

“공은 정경正卿이 되어 위로 선제先帝의 공업功業을 기리지 못하고, 아래로 천하의 사심邪心을 억제하지 못하여 나라의 안녕과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일과 옥을 비게 만드는 일을 하지 못하였소. 두 가지 중 하나도 한 것이 없소. 고행노력함이 없이 함부로 옛날의 제도를 헐고 쪼개는 것으로 공을 삼으니, 어찌서 이런 식으로 고향제高皇帝의 약법約法을 어지럽게 변경함을 일삼으오. 공이 이렇게 한다면 주책誅責이 자손에게 미칠 것이요.”

암은 때때로 탕과 더불어 토론했다. 탕은

말재간이 있어서 용의주도하고 법령에 대하여 깊이 세밀한 곳까지 들어서 설명하였고, 암은 강직 엄려한 자세로 굴함이 없이 성을 내며 꾸짖었다.

“천하에서 평하기를 하급관리로 공경을 삼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구나. 반드시 탕을 이르는 말일 게다. 천하로 하여금 밭을 곱치고 서게 하고 옆에서 결눈질로 보게 하니 말이다.”

이때 한나라는 바야흐로 흉노를 정벌하고, 사이(四夷)를 불러 회유하였다. 암은 힘써 일을 적게 만들며 항상 기회만 있으면 주상에게 호(胡)와 화친을 하고 군사를 일으키지 말라고 했다. 천자는 바야흐로 유술(儒術)에 마음을 기울여 공손홍(公孫弘)을 존경하니 일은 갈수록 많아지고, 관리와 백성들은 교묘하게 법을 농락하기에 이르렀다. 주상이 법을 분별함에 있어서, 탕 등은 때때로 죄인의 판결문을 올려 이로써 총애를 받았다. 그리하여 암은 항상 유가(儒家)들을 헐뜯었고, 홍(弘) 등을 면박주어 ‘다만 거짓을 품고 지혜 있음을 꾸며, 이것으로 사람들과 주군에게 아첨함으로써 받아들여지기를 구한다. 그리하여 하급의 관리들은 전적으로 법률을 지나치게 따져 교묘하게 사람을 죄에 바지게 하여 진실에 돌아가게 하지 않으며, 억누르는 것으로서 공을 삼는다’고 했다.

주상은 날이 갈수록 흥과 탕을 귀하게 여겼고, 흥과 탕은 깊이 암을 미워했다. 주상 역시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암을 벌 줄 것을 생각하

였다. 흥은 승상이므로 이에 주상에게 말했다.

“우내사(右內史)의 영내(領內)에는 귀인(貴人) 종실이 많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본디 중신(重臣)이 아니고서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암을 옮겨 우내사로 삼으십시오.”

암은 우내사를 지내기를 수년, 관청의 사무를 폐하지 않았다.

대장군 청(淸)은 이미 더욱 존귀해졌다. 누님은 황후가 되었다. 그러나 암은 그와 대등한 예(禮)를 했다. 사람들이 혹은 설득하여 이렇게 말했다.

“천자에서부터 못 신하에 이르기까지 대장군에게 몸을 낮추어 예대하려고 한다. 대장군은 존중하여지고 더욱 귀하게 되었다. 그대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

암이 말했다.

“저 대장군으로서 그에게 절하지 않는 객(客)이 있다면 도리어 대장군은 더욱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장군은 이 말을 듣고, 더욱더 암을 현명하다고 했다. 그리하여 때때로 국가의 일이나 조정에 대하여 의심되는 바를 청하여 물었고, 암을 대우하기를 평소보다 더하게 했다.

회남왕은 모반하려고 하였을 때에 암을 꺼리어 말했다.

“그는 직간을 좋아하고 충절을 지켜 의에 죽을 것이니, 옳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를 유혹하기는 어렵다. 승상(丞) 흥을 설득하는 것쯤은

덮은 것을 열고 낙엽을 펼쳐내는 것과 같이 용이할 뿐이다.”

천자는 이미 수차에 걸쳐서 흉노를 정벌하여 공이 있어서 암의 말은 더욱 쓰이지 않았다.

처음 암이 구경에 열하게 될 때 공손홍이나 장탕은 작은 관리에 지나지 않았으나, 흉과 탕이 더욱 귀하게 되기에 이르러 암과는 같은 지위에 있게 되었다. 암은 또 흉과 탕 등을 헐뜯었다. 이미 흉은 승상에 이르고 봉해져서 侯가 되었다. 탕은 이사대부에 이르렀다. 본래 암이 구경에 끼었을 당시 승상의 속관이었던 자는 모두 암과 함께 같이 열하였고, 혹은 더 높게 등용되었다. 암은 마음이 편협해지고, 사소한 원망이 없을 수 없었다. 주상에게 나아가 배알하며 말했다.

“폐하께서 못 신하들을 등용하시는 것은 얼마나 단을 쌓는 일과 같을 따름입니다. 뒤에 온 자가 위에 있으니 말입니다.”

주상은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암이 물러가자 말했다.

“사람은 과연 배움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암의 말을 관찰하니 날로 더욱 심해지는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흉노의 혼사왕(渾邪王)이 무리를 이끌고 투항해 왔다. 한(漢)은 수레 이만승(二萬乘)을 보내게 되었는데 나라에는 돈이 없어 백성들에게 빌리게 되었다. 백성들이 말을 감추자 말이 모아지지 않았다. 주상은 노하여

장안령(長安令)을 참하려고 했다. 암이 말했다.

“장안령은 죄가 없습니다. 단지 암을 베시면 백성들은 이에 응하여 말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흉노는 그 주인을 배반하고 한에 투항하였으니, 한에서는 서서히 현(懸)에서 현으로 차례차례 전송(傳送)해도 될 것을 어찌하여 천하를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고 중국을 피폐하게 함으로써 이적(夷狄)의 사람들을 모셔오는 것을 일삼습니까?”

주상은 아무 말이 없었다. 혼사(渾邪)가 이르니 장사꾼들이 그들과 더불어 사고팔며 교역을 하다가 죄를 지어 사형에 해당하는 자가 5백여 명이나 되었다. 암은 여가를 청하며 고문(高門)에서 주상을 뵈고 말했다.

“저 흉노는 통로에 있는 요새를 공격하여 화친을 끊었으며, 중국은 군사를 일으켜 이를 토벌하였습니다. 사상자는 헤아릴 수 없었고, 비용으로 쓴 돈은 무려 수백만이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폐하께서 호인을 얻을 경우 이들을 모두 노비로 삼아, 종군하다가 죽은 자의 집에 내려주실 일이며, 따라서 노획한 물건들은 그들에게 주시어 이로써 천하의 노고에 사례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비록 그렇게는 못할망정 혼사가 수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니, 폐하께서는 국고를 텅 비게 하여 그들에게 상을 내리고, 양민을 동원하여 그들을 시중들며 봉양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비유하자면 방자한 자식을 떠받드는 것

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장안의 저자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법률을 맡은 관리가 ‘재물을 함부로 국경의 관문으로 내보낸 죄’로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폐하께서는 비록 흉노의 물자를 얻어 천하에 사례할 수 없더라도 또한 미세한 법을 가지고 무지한 자 5백인을 죽인다면 이것은 이른바 그 일을 감싸고 그 가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은 가만히 폐하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상은 아무 말이 없더니,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내 급암의 말을 듣지 않은 지 오래다. 지금 또 다시 망발을 되풀이 하는구나.”

몇 달이 지나서 암은 대수롭지 않은 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기다렸으나 사전赦典을 만나 관직을 해면하고 석방되었다. 이리하여 암은 전원에 은거하였다.

그가 은거한 지 몇 해가 지났다. 그때 5수전五銖錢을 다시 주조하게 되었는데 많은 백성들이 돈을 위조하였다. 초나라 땅에서 더욱 심했다. 주상은 생각하기를, ‘회양淮陽은 초나라 땅의 교외다’하고, 이에 암을 불러 회양의 태수로 임명하였다. 암은 옳드려 사양하며 임명장을 받지 않았다. 수차례에 걸쳐 조칙을 내려 강요하였고, 그런 후에야 조칙을 받들었다. 조칙을 받고 주상을 배견하자 암은 주상을 위해 울면서 말했다.

“신은 죽어 구덩이에 묻힐 때까지 다시는

폐하를 뵙지 못하리라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뜻밖에도 폐하께서 다시 거두어 써주시오나, 신은 늘 구마狗馬의 병이 있어 힘이 군郡을 맡을 수도 없습니다. 신은 바라옵건대 중랑中郎이 되어 궁중에 출입하면서 잘못된 것을 도와 고치고, 떨어진 것을 줍겠습니다. 이것이 신이 원하는 바입니다.”

주상이 말했다.

“그대는 회양淮陽을 박薄하다고 여기는가? 내가 지금 그대를 부른 것은 돌이켜보건대, 회양의 관리와 백성이 서로 화합하지 않아 다스려지지 않으니, 단지 그대의 위중威重을 얻어 누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암이 이미 하직을 하고 가는 길에 태행太行이식李息에게 들려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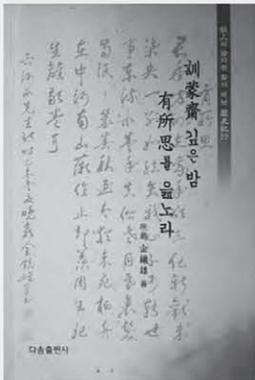
“암은 버려져서 군에 거주하게 되니 조정의 논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소. 그러하나 어사대부 장탕의 간지奸智는 직간直諫을 막는데 능숙하고 간사함은 법에 어긋남을 그럴 듯하게 꾸미는 데 능숙합니다. 교묘하고 망령된 말과 수다스러운 능변의 언사만을 애써 하여, 천하를 위한 정당한 발언을 하려 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군의 뜻에 아첨만 일삼고 있습니다. 주군의 뜻이 바라지 않는 바가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남을 헐뜯고, 주군의 뜻이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아첨함으로써 그것을 칭찬합니다. 즐겨 일을 일으키고, 법률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안으로 거짓을 품어 이

것으로 주군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밖으로는 토색질 하는 벼슬아치들을 끼고 이것으로 위중(威重)을 삼고 있습니다. 공은 구경(九卿)에 끼어 있으니 빨리 이를 말하여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도 그들과 함께 같은 욕을 받게 될 것이요.”

이식은 탕을 두려워하여 끝내 감히 말하지 못했다. 암은 군에 있으면서 옛처럼 다스려 회양의 정사는 맑았다. 뒤에 장탕은 과연 패배하였다. 주상은 암과 식이 전날 이야기한 말을 소문으로 듣고 식을 죄주고 암에게는 제후의 정승과 동급의 품계를 주어 회양에 있

게 하였다. 7년 후에 암은 죽었다.

그가 죽은 뒤 주상은 암을 생각하여 그 아우 급언(汲仁)에게 벼슬을 주니 구경(九卿)에 이르렀다. 아들 급언(汲偃)은 제후의 정승에 이르렀다. 암의 큰고모의 아들 사마안(司馬安) 역시 젊어서 암과 함께 태자의 세마(洗馬)가 되었었다. 안(安)은 길을 꾸미는 것이 깊어서 처세를 잘 하였으며, 환관과 친하였다. 벼슬이 네 번이나 구경에 이르렀고, 하남의 태수로 있다가 죽었다. 그 형제들은 안의 연고로 해서 동시에 2천 석에 이른 자가 열 명이나 되었다.



김진웅(金鎭雄) 문정공 원임 도유사

『훈몽재 깊은 밤 유소사(有所思)를 읊노라』 출간

문정공 도유사를 역임했던 김진웅(하서 16대손) 회원이 ‘조상의 발자취를 찾아 떠난 역사기행 『훈몽재 깊은 밤 유소사(有所思)를 읊노라』(다솜출판사)를 출간하였다.

한시문에 능통한 원임 도유사는 하서 선생과 울산김씨 역사와 본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박한 지식으로 깊게 파헤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밝혔다.

조선을 빛낸 호남 출신 학자와 문인들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15세기에서 16세기 동안, 조선 시대의 유학은 가장 왕성한 번성기를 맞아 찬란한 학술 문화를 꽃피웠다. 그러한 유학의 발전시기에 유독 호남 출신 학자와 문인들이 대거 배출되어, 조선의 유학을 석권할 정도로 큰 역할을 했음을 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선조宣祖에서 광해군 시절에 살았던 지봉 이수광(1563~1628)은 그의 유명한 저서 『지봉유설』에서 “근래의 시인은 대부분 호남에서 나왔다”라고 말하여 유학의 영역인 시문학은 호남 출신이 조선을 대표한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거명된 사람은 놀재 박상(1474~1530), 석천 임억령(1496~1568), 금호 임형수(1514~1547), 하서 김인후(1510~1560), 송천 양응정(1519~1581), 사암 박순(1523~1589), 고죽 최경창(1539~1583), 옥봉 백광훈(1537~1582), 백호 임제(1549~1587), 제봉 고경명(1533~1592) 등이다. 이들을 열거하여 조선의 대표적인 시인은 호남 출신이 독점할 정도라고 말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홍길동전』의 저자 교산 허균(1569~1618)은 그의 유명한 저서 『성소부

부고』에서 “중종 시대에는 호남의 인재로서 그 당시에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 매우 많았다”라고 말하며 이수광이 거명한 사람 이외에 또 옥봉 박우(1476~1547), 신재 최산두(1483~1536), 유성춘과 유희춘(1513~1577) 형제, 학포 양팽손(1488~1545), 송재 나세찬(1498~1551), 면양정 송순(1493~1582), 국재 오겸(1496~1582) 등의 학문과 문장을 찬양하고, 대학자로 일재 이항(1499~1576), 고봉 기대승(1527~1572)을 거명하며 시문학보다는 성리학의 대표적 학자라고 말했다.

허균보다는 조금 후배인 택당 이식(1584~1647)은 대제학에 판서를 지낸 문인인데, 그의 저서 『택당집』에서 “호남의 상도上道에는 일재 이항이 있고 하도下道에는 고봉 기대승이 있으며, 일재를 이어 건재 김천일(1537~1593)이 있었다”라고 말하여 학자이자 시인이던 하서 김인후 이외에도 일재, 고봉, 건재라는 3대학자를 거명하였다.

이수광 허균 이식보다는 1세기 뒤 대제학에 이조판서를 지낸 학자인 옥오재 송상기(1657~1723)는 『옥오재집』이라는 문집에서

“박상 김인후 임억령 임형수 박순 유희춘 기대승 이항 김천일 고경명 백광훈 임제 등이 성리학 명덕(明德) 절의(節義) 문장으로 조선을 대표했다”라고 말했다. 학문 절의 문장가들이 호남에서 배출했음을 지적하고 또한 그 뒤로도 우산 안방준(1573~1654) 소은 신천익(1592~1661) 등의 학자가 배출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록을 살펴보면 15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도록 그중 단 한 사람의 이름만 거명하여도 조선을 대표하던 시인이요, 학자요, 절의를 지킨 충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것처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거의 동시대에 호남에서 배출되어 조선을 대표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니, 호남이라는 한 지역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지역이었는가. 더구나 조선시대란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고 통신 수단이 아주 미약하던 때여서, 정보의 부족으로 앞에서 거론하지 못한 학자나 문인들도 셀 수 없이 많았던 점으로 보면 실로 호남은 학문과 시문학으로 조선 왕조의 학술과 문화를 책임지고 있었던 지역임을 알게 된다.

조선 후기에도 호남에서 3천재라는 신경준, 위백규, 황윤석 등 3대 실학자가 나왔다. 한말에는 조선의 마지막 최고 성리학자인 노사 기정진(1798~1879)이 호남 출신이요, 최고 시인이던 매천 황현(1855~1910) 또한 애국지사로서 문장가로 조선을 대표하던 수준이었다. 이만하면 조선 왕조에서 호남이 지닌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은 돌고 돌며, 역사는 바뀌고 변한다. 찬란했던 호남의 학술과 문화는 현양되거나 제대로 연구되지 못해, 현대인들은 진정한 호남을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 더구나 군사 독재가 계속되고, 특정 지역 출신 군인들이 권력을 독점한 뒤, 자기들 출신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학술만 자랑하느라 찬란한 옛날의 호남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는 호남을 고립시키며 혐오에 가까운 악질적인 언사를 계속 남발하여 호남의 위상은 위축되고 축소되는 비운의 시기가 이어져왔다.

‘천운순환 무왕불복(天運循環 無往不復)’(朱子)이라, ‘하늘의 운세는 돌고 돌아, 가버리고 다시 오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했듯이, 그 찬란했던 호남의 학술과 문화가 영원히 사라져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호남의 운세는 돌아오고 있다. ‘한국학호남진흥원’도 설립되어 호남학은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날도 멀지 않았다.

정치 지형도 바뀌면서 호남인들도 관계에 이름을 빛내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 남도 북도의 소소한 갈등이나 지역 간의 자잘한 이해에서 훌쩍 뛰어넘어 호남 내부의 결속만 강화한다면, 옛날의 영광을 되찾아내기는 결코 어렵지 않게 되었다. 어떤 무엇보다 학문에 더 돈독한 노력을 기울이고, 문화 창달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그 역사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조선유학의 성지 필암서원 춘향제 봉행

초원관에 정환담 학장

하서 김인후 선생을 기리는 필암서원 춘향제가 지난 4월 5일 필암서원에서 봉행되었다. 박병호 필암서원 원장, 정환담 산양회장, 문영수 장성향교 전교, 광주, 장흥, 보성, 순창 유림들과 울산김씨 종친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초원관 정환담 학장의 초헌례로 시작하여 본 행사를 성대히 마쳤다. 이어서 하서 선생의 삶과 정신과 도학이 오늘의 호남정신으로 이어져 온 사적 맥락에 대한 초헌관의 강론이 있었다.

박병호 원장은 서울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하서 선생 친필 서한을 공개했다. 초서체 글씨에서 학자적인 품모와 함께 자유분방함이 느껴진다고 했다.

춘향제 후 청절당에서 수당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수당재단은 장성과 순창의 고교 3학년 50명에게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하서 김인후 선생의 도학과 절의를 기리는

추향제 올린다

초원관에 김평호 나주향교 전교

하서 김인후 선생의 도학과 절의를 기리는 추향제가 9월 22일 필암서원에서 거행되었다. 추향제에는 최흥렬 광주향교 재단이사장, 유두석 장성군수, 박금규 원광대 명예교수,

서형탁 세종시 유림대표, 이 고장 유림과 김인수 도유사, 김달수 대총회장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제향 후 초헌관을 맡았던 김평호 나주향교 전교는 「유교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초헌관은 “공자가 절대자가 아니며, 내세관에 입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자는 3대 성인이며 내세관은 종교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유교는 종교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16회 하서유적지 탐방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김수현 양(장성 중앙초 5학년)이 수상작 「장성의 자랑스러운 인물 하서 김인후 선생님」을 영전 앞에서 봉독했다.

조선시대 대표적 여섯 서원의 정신문화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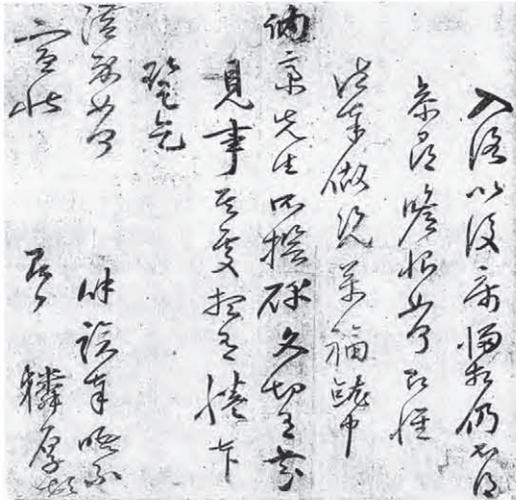
『필암서원』, 『도산서원』, 『옥산서원』 등 6권 발행

조선시대 대표적 인문학 공간이었던 전통 서원 여섯 곳과 그 안에 담긴 정신문화를 조명하는 책이 나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안병욱)이 펴낸 『도산서원』, 『옥산서원』, 『필암서원』, 『덕천서원』, 『석실서원』, 『돈암서원』이다.

기존 서원 관련 도서가 주로 건축물이나 관광지로써 서원을 다룬 데 비해 이 책들은 인문정신문화 자산으로서 서원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서원에 배향된 인물의 사상과 활동을 중심으로 철학 문학 역사에서부터 예술 민속, 건축과 경제에 이르기까지 망라했다. 분야별 전문가 31명이 필자로 참여했다.

‘한국의 서원’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 중이며, 내년 7월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은 해마다 서원을 선정하여 그 서원에 관련된 인물, 사상 정신을 책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하서 김인후 선생 친필 간찰 발견
오 세창 「근역서휘(槿域書彙)」에서
2017년 1월 도록집 영인본 발간



入洛以後，病惱相仍，不得參尋，瞻恨如何？
即惟侍奉做況萬福，就中訥齋先生所撰碑文，
切有考見事，其處想有謄本，暫乞借示，如何？

餘埃奉晤，不宣狀。

即日，麟厚頓

서울에 올라온 이후 질병과 괴로운 일들이

계속 이어져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리운 마음과 한스러움이 어떠하겠습니까? 요즘은 부모님을 모시면서 공부하시는 근황이 반복 하신지요?

드릴 말씀은, 놀재 선생님께서 지으신 비문을 절실하게 살펴보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등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잠시 빌려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는 만나 뵙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줄입니다.

즉일에 인후가 머리 조아립니다.

(박병호朴秉濠 필암서원장님 해독)

하서 유적지 탐방 글짓기 대회

장성군내 초등 5학년

필암서원 학술회(대표 김인수)는 지난 5월 12일 장성군 내 초등 5학년 30명을 대상으로 ‘하서 김인후 선생의 삶을 찾아가는 여행’이란 주제로 하서 선생의 유적지를 탐방하고 글짓기를 하였다.

이 행사는 문정공 종중과 필암서원이 공동 주최하고, 하서학술재단이 후원하고, 장성군과 교육지원청이 지원하여 하서 선생의 삶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이날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입소식을 가진 뒤 하서생가, 신도비, 하서묘소, 통곡대, 박수량 백비를 탐방하고 하서 선생이 후학을 양성했던 순창군 훈몽재를 방문하여 김 충호 산장에 예절교육을 받았다.

학생들이 지은 글을 심사하여 3명에게 장

학금을 수여하였다. 입상자는 금상에 중앙초 김수현(50만 원), 은상에 진원초 이서은(30만 원), 동상에 월평초 최민교(20만 원)이다.

니, 오히려 활동이 위축된 감이 있으니, 정관을 검토하여 집행부를 거느린 회장 체제로 운영하자(김재수)는 건의가 있었다.

필암서원 도집강에 정채호(丁彩鎬)

본회 전 이사 선임

필암서원 도·군집강이 새로 선임되었다. 신입 도집강에는 정채호 본회 전 이사가, 군집강에는 김한식(金漢植), 김만원(金萬源) 씨가 임명되었다.

필암서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원장 박병호 도집강 정운엽, 오인균, 정채호
군집강 박래호, 이충원, 김한식, 김만원

2019년도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이사회

2019년도(제18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 준비를 위한 이사회가 11월 12일 17시 예원식당에서 열렸다. 정환담, 김상현, 김재수, 김장수, 김용하 이사와 김승규감사, 김인수 도유사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번 정기총회는 12월 상순 무렵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열기로 했다.

본회 회보 『하서 도학과 문학』이 심미안 출판사에서 제작되고 있음을 김재수 상임이사가 보고하였다.

필암서원 산양회, 2018년 상반기 이사회 열다

『산양회보』 제호 글씨 선정하고,
회보 편집방침 논의함

본 산양회 2018년 상반기 이사회가 지난 6월 16일 12시에 일송정에서 있었다. 정환담 김상현 김재수 박래호 김장수 이충원 김용하 김봉곤 이사와 김승규 감사 김인수 도유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안건으로, 본 『산양회보』 제호 글씨 선정, 『산양회보』 편집 방침, 본 회보 31호 제작연기, 회원확충문제, 재정과 회비납부 문제를 논의하였다.

『하서집』을 고전번역원에서 새로이 번역하도록 추진하자(김장수 이사), 사단법인으로 바뀌어서 이사 중심으로 본회가 운영되다보

**본회보 제호 '하서도학(河西道學)과 문학(文學)',
박병호 원장 글씨로 확정**

지난 6월 16일 이사회에서 본 『산양회보』 제호 '하서도학과 문학'글씨를 필암서원 박병호 원장님의 글씨로 확정지었다. 영산 박병호원장은 하서 선생 글씨를 집자하여 고심에 찬 노고로 크기를 맞추어 제1안으로 내놓으시고, 영산께서 친필로 쓰신 것을 제2안으로 보내주셨는데, 이사회에서 논의한바 영산 박병호 원장님의 글씨를 필암서원에 영원히 남기는 것이 하서 선생의 선비정신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모아 그리 결정하였다.

본회 창립 초대 산양회장

고 안진오 박사 소천하시다

본회 창립을 이끌었던 초대 산양회장 고 안진오 박사께서 지난 11월 4일 소천하셨다. 필암서원에서는 박병호 원장 명의로 화환을 보내 조의를 표하였고, 정환담 이사, 김재수 상임이사, 김장수 이사가 그린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가 문상하였다.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유학자이신 고인을 애도하고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유학(儒學)교육의 산실로 거듭난 훈몽재

순창군은 하서 김인후가 후학을 길렀던 학당인 순창 훈몽재를 새롭게 단장하여 유학교육의 산실로 운영한다고 한다. 우선 유학 교육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보강하고, 냉난방기 설치, 장판을 교체하기로 했다.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순창군은 올해 4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학과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유학전문교육반을 비롯해 방학예절교육반, 부모님과 함께하는 단기체험교육반(1박2일), 부녀자교육반을 운영한다.

군은 특히 지난해 완공한 ‘선비의 길’과 순창을 찾는 교육생들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선비의 길’은 쌍치면 둔전리에 있는 훈몽재에서 북흥면 하리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까지로 송강의 친필이 새겨진 바위, 하서가 은거했던 낙덕정, 대법원의

가인연수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수당재단, 하서 고향 인재 30명에

장학금 전달

춘향제가 열린 지난 4월 5일 하서 선생 후손이 운영하는 수당재단이 장성지역 우수 고등학생 30명에게 각각 100만씩 장학금(총 3,000만 원)을 수여하고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장성지역 장성고, 문향고, 삼계고, 장성하이텍고에서 선발되었다.

수당재단은 하서 선생 13대손으로 삼양그룹을 창립한 수당 김연수 회장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2011년부터 하서 선생의 고향인 장성의 인재들에게 계속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필암서원 박병호 원장은 “수당재단 김상하 이사장께서 하서 선생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장성에서 계속 나오길 바라는 뜻에서 매년 우수한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7회 수당상 시상식 성료

수당재단은 삼양그룹 창업자 수당 김연수 선생의 산업보국과 인재육성 정신을 계승하여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분들에게 수당상을 수여하고 있다.

제27회 수당상 수상자는 기초과학부문에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 최의주, 응용과학부문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병호, 인문사회과학부문에 서울대 사회과학과 명예교수 임현지 3인이며, 상금은 각 1억원이다.

2018년 5월 8일 17시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 스타 볼룸에서 재계 정계 교육계 및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48명 시詩로 만나는 소쇄원

지난 9월 17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시민감독 4인이 만든 '세미다큐' 상영회가 열렸는데, 본회 김병원 회원이 하서 선생의 시 「소쇄원48명」을 소재로 30분짜리 세미다큐 〈48명으로 만나는 소쇄원〉을 제작하여 방영하였다. 김병원 회원은 필암서원을 소재로 세미다큐를 제작하여 방영한 바 있다.

祝 김상호 대구대 총장 취임

제12대 대구대 총장에 김상호(하서 14대손) 교수가 취임하였다. 제18대 대구경북지역 대학교육협의회의장에 선출되어 이 지역 대학교육을 이끌고 있다.

祝 김동원 교수 전북대 임용후보자 당선

김동원 교수가 2018년 10월 29일 3차 투표에서 현 총장을 제치고 1순위 임용후보자에 당선되었다. 김 후보자는 하서 14대손으로 서울대 산업공학과와 일본 북해도 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부터 전북대 산업공학과 교수로 봉직해왔다.

추향제에 화환 보내주시 분

• 광주향교전교 김남전 • 성균관유도회 광주시본부회장 김중채 • 광주향교모성회장 이종섭 • 광주향교재단이사장 최흥렬 • 문정공도유사 김인수 • 대종회장 김달수 • 광주종친회장 김동식 • 장성종친회장 김을수 • 밀등회회장 김상덕 • 그레이스화원 김동원

추향제에 화환 보내주시 분

• 광주향교 전교 김남전 • 성균관유도회 광주시본부회장 김중채 • 광주향교모성회장 이종섭 • 광주향교재단이사장 최흥렬 • 벽진서원 윤장현 원장 • 문정공도유사 김인수 • 대종회장 김달수 • 광주종친회장 김동식 • 장성종친회장 김을수 • 밀등회회장 김상덕 • 그레이스화원 김동원

2018년 춘향제 성금

성명	직위 및 주소	금액	성명	직위 및 주소	금액
김상하	하서학술재단	3,000,000	이기선	농협군지부장	100,000
문정공종중		1,000,000	김진오	문정회 회장	100,000
필암서원산양회		500,000	김재승	전 전남대 교수	100,000
김인수	문정공 도유사	500,000	김용대	계과도유사	100,000
정환담	초현관	300,000	김재수	서삼면 용흥리	100,000
양태호	제주양씨문중	300,000	별유사	곡성영규서원	100,000
김달수	울김대종회장	200,000	김종갑	서수원공 종중	100,000
문영수	장성향교 전교	200,000	김양수	전 장성군수	100,000
김상열	하서학술재단이사	150,000	송계서원	북이면 오월리	50,000
김재훈	순창복흥 운영위원	100,000	양태호	광산구 수을로	50,000
김성수	문정공 부도유사	100,000	김영일	장성 산림조합장	50,000
김상현	문정공 부도유사	100,000	공영갑	장성 문화원장	50,000
김상표	문정공 고문	100,000	김종하	봉선동 무등	50,000
김상윤	장성교육장	100,000	양계서원	남면 청송심씨	50,000
김진웅	전 도유사(부산)	100,000	강성주	바르게살기회장	50,000
정채호	필암서원 도집장	100,000	김영국	동구 두산@	50,000
양홍일	광주 우산동 상록@	50,000	고광춘	장성 청년유도회장	50,000
양홍식	담양 남면 영천길12	50,000	김영길	서울종친	50,000
최남호	전 장성군의회의장	30,000	차장근	장성 축협장	50,000
김관중	장파도유사	100,000	김희태	도 문화재위원	50,000
김재수	산양회상임이사	100,000	김영풍	전 문화원장	50,000
김정수	전 대종회장	100,000	기호중	고산서원 별유사	50,000
김문수	황룡면 필암리	100,000			

2018년 추향제 성금

성명	직위 및 주소	금액	성명	직위 및 주소	금액
학술회		3,000,000	김종갑	울산김씨 서수헌공파종중	100,000
김인수	문정공 도유사	500,000	김정옥	원황룡	70,000
산양회	필암서원 산양회	500,000	김상준	대중회 부회장	50,000
김달수	울산김씨 대종회장	200,000	반상진	장성군 노인회장	50,000
김문수	엠에스토피아 대표	150,000	봉암서원	장성을 봉암서원 별유사	50,000
박상근	장성 삼계면 평림암치로 32-5	100,000	김영일	장성 산림조합장	50,000
김승규	광주시 남구독립로 54번길 29	100,000	윤규현	광주북구 삼정로20 모야미래도	50,000
설명환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제관)	100,000	공재경	장성군 북이면 만무리	50,000
김관중	장파도유사	100,000	김상백	광주중친회 사무총장	50,000
김용대	울산김씨 장산문중 도유사	100,000	김종하	광주 남구 봉선동 무등@	50,000
김용화	전 광주고 교장	100,000	심재영	삼서면 표의사	50,000
김재수	산양회 상임이사	100,000	김순옥	장성군 북하면 담장로(해설사)	50,000
문영수	장성향교 전교	100,000	이종찬	죽림서원	50,000
김진오	울산김씨 문정회	100,000	고광춘	장성향교 청년유도회장	50,000
김상운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00,000	김상집	광주 서구 마북개로164 우성@	40,000
김상현	부도유사	100,000	이홍주	광주 북구 벽산@	30,000
김성수	부도유사	100,000	김영우	원당유사	50,000
벽진서원	음성박씨 회재선생 후손	100,000			
김재훈	순창군 북흥면 (운영위원)	100,000			
김양수	전 장성군수	100,000			

필암서원 산양회 활동사항

- 2001년 8월 22일 필암서원에서 고흥근 씨 등 유림 230명이 모여 구 산양계를 ‘산양회’로 발족
- 2001년 8월 22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 선생의 생애와 사상” 주제로 안푸품 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년 10월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우암 선생이 본 하서 선생” 주제로 趙鍾業 충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년 12월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 도학과 절의” 주제로 金基鉉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년 3월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 후 “인종승하와 하서의 절의” 주제로 金鎮雄 씨(문정공과 부도유사) 강회
- 2002년 8월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필암서원 집강)이 번역 봉독
- 2002년 9월 26일 秋후 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 선생의 천명사상”의 주제로 尹絲淳 고려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2년 12월 10일 필암서원 山仰會報(통권 제1호) 1,000부 발행 配布
- 2002년 12월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의 선비정신” 주제로 전주대 吳種逸 교수의 강회
- 2003년 3월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 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란 주제로 朴煥圭 전남대 명예교수(담양 가사 문학관장)의 강회
- 2003년 5월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푸품 산양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이 특강을 하는 등 하서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하는 데 기여하였음
- 2003년 6월 20일 필암서원 山仰會報(통권 제2호) 1,500부 발행 配布
- 2003년 7월 1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 한국유교의 과제”란 주제로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가 강회를 여는 등 하서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하는 데 기여하였음
- 2003년 9월 23일 춘향제를 올리고 “하서 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주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하였음
- 2003년 12월 10일 필암서원 山仰會報(통권 제3호) 1,500부 발행
- 2003년 12월 17일 산양회정기총회. 안푸품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 사임하고 새 회장에 朴鍾達, 새 총무에 孔鍊雄 선임. “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학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강연함
- 2004년 3월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대 박병호 교수가 河西 선생이 경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 강연하였음
- 2004년 9월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년 12월 10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경제학과 이현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통권 제4호) 1,500부 발행
- 2005년 3월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유림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총장 洪一植 박사가 강연함
- 2005년 6월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학술 강연, 연세대 송준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

- 면”이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5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 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청절당에서 강연함
 - 2005년 12월 8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 선생의 中和 思想”이라는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년 3월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 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
 - 2006년 7월 5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중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정치와 하서 김인후”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년 10월 1일 춘향제를 올리고, “政治人이 우러러보는 河西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현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함
 - 2006년 12월 13일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이라는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강연함
 - 2007년 4월 3일 추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이 21세기에 유럽에게 던지는 메시지”란 주제로 변은섭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강연함
 - 2007년 12월 2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라는 주제로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강연. 山仰會報(통권 제10호) 발간. 吳仁均 신임회장 선출
 - 2008년 3월 1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과 가사문학”이란 주제로 문경규 전 담양군수 강론
 - 2008년 7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박준규 박사가 “河西문학의 道學的 이해” 강연. 山仰會報(통권 제11호) 발행.
 - 2008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柳承國 원장이 “東아시아 사상 基調로서의 道와 河西思想”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8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김재수 교수가 “河西는 洋狂爲奴論을 왜 썼는가” 강연함. 山仰會報(통권 제12호 발간)
 - 2009년 3월 13일 필암서원에서 춘향제 올리고 安炳周 박사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을 주제로 강연
 - 2009년 7월 1일 崔山斗 先生의 도학정신(최대우 전남대 교수) 강연. 山仰會報(통권 제13호) 발간
 - 2009년 9월 29일 추향제. 이동준 성균관대 전 유도대학장이 “하서 선생의 학문 세계” 강연
 - 2009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이준영 감사 「예기유행편」 강독, 山仰會報(제14호) 발간
 - 2010년 3월 2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 도학과 절의에 대한 강연(金東炫 울곡사상연구원 이사장).
 - 2010년 7월 7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선비정신 확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 하서 선생의 上李太守書에 대하여(金正洙) 강연. 山仰會報(제15호) 발간
 - 2010년 12월 16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선비의 시각으로 파악한 河西 선생 : 오종일(전주대 명예교수) 강연
 - 2011년 3월 23일 춘향제 올리고, 김병일 원장 “선현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강연
 - 2011년 7월 6일 집성관에서 ‘한국 유학의 현대화를 위한 논점 세 가지’(전남대 김기현 교수 강연). 山仰會報(통권 제17호 발간)
 - 2011년 9월 9일 추향제 올리고 초현관 심우영(전 총무처 장관, 전 한국국학진흥원장 장관) 강연
 - 2011년 12월 20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하서 김인후의 誠敬 사상 : 이애희(강원대 교수) 강연

필암서원 산양회 활동사항

- 2012년 3월 7일 춘향제, 초헌관 최상옥 회장 인사말
- 2012년 7월 4일 집성관에서 “하서 선생의 시문학에 대한 후인들의 평가”, 박명희 박사(전남대 호남학 연구원)
- 2012년 10월 3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박병호 원장 “하서 선생에 대한 사관(史官)의 평가” 강연
- 2012년 12월 2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정환담 학장 : “하서 사상의 현대사적 재조명” 강연
- 2013년 3월 22일 춘향제 올리고 초헌관 이낙연 의원 “河西의 出處는 오늘날 공직자의 귀감” 강연
- 2013년 7월 1일 집성관에서 “동춘당과 우암의 하서 존숭”, 김문준 교수 강연(건양대)
- 2013년 9월 30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이정식(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원장)이 “한중 호남 문화 속의 악록서원과 필암서원 교류 의미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론
- 2013년 12월 1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하서 김인후, 그가 만났던 사람들”, 고영진 교수 강연함.
- 2014년 3월 17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이성무 한국학술원 부원장,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사상” 강연함
- 2014년 6월 25일 집성관에서 “청백리 사암(思庵) 박순(朴淳)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 강연
- 2014년 9월 13일 필암서원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서정기 성균관장 “유교와 현대 민주주의” 강연
- 2014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의 “하서의 철학과 복성부(復性賦)” 강연
- 2015년 4월 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뿌리회 이용규 전 회장 “강화학과 정신과 독립운동” 강연
- 2015년 10월 2일 추향제 올리고 박광순 학술원 회원 “유교의 종교성에 관한 일고찰” 강연
- 2015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오종일 전주대 교수 “하서 선생 시의 천명사상과 그 지향성” 강연
- 2016년 3월 26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송하경 성균관대 명예교수 “하서 선생 <천명도 제사>의 우리말 해석에 대한 소견” 강연
- 2016년 7월 8일 집성관에서 김충호 훈몽재 산장 “도학의 원류와 하서 선생 도학시”로 강연
- 2016년 9월 12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고재유(전 광주광역시장) 인사말
- 2016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강위원 여민동락공동체 대표 “공동체는 탁월한 개인보다 지혜롭다” 강연
- 2017년 3월 1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하서 김인후 선생과 지역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초헌관 정병석 전남대 총장 강연
- 2017년 7월 3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원광대 김봉근 교수 “하서 김인후 선생의 절의와 도학” 강연
- 2017년 10월 15일 추향제 올리고 정운엽 초헌관 “하서 선생은 해동의 주돈이요 호남의 공자” 강연
- 2017년 12월 4일 광주향교에서 17회 정기총회 후 조선대 이종범 교수 “하서 김인후의 출처의리와 도학 세계”란 주제로 강연
- 2018년 4월 5일 춘향제 봉행하고, 청절당에서 초헌관 정환담 학장이 “하서 사상의 사적맥락에 관한 고찰”이란 논제로 강연
- 2018년 9월 22일 추향제 봉행하고, 청절당에서 초헌관 김평호 나주향교 전교가 “유교에 대한 이해”란 논제로 강연

천명天命과 중화中和

하늘이 명하는 것을 일컬어 성性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일컬어 도道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일컬어 교敎라고 한다.

도라는 것은 잠시라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도가 만약 떠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보이지 않는 데서 계신戒愼하고, 들리지 않는 데서 공구恐懼한다. 숨은 것처럼 잘 드러나는 것은 없으며, 미세한 것처럼 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음을 삼가는 것이다. 희노애락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를 중中이라 일컫고, 그것이 발현되어 절도에 들어맞는 것을 화和라고 일컫는다. 中이라는 것은 천하天下의 큰 근본이요, 和라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달성해야 할 길이다.

中과 和를 지극한 경지까지 밀고 나가면, 하늘과 땅이 바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이 잘 자라게 된다.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是故君子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慎其獨也.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中庸 第一 天命章)

山仰會報 제호를 천명과 중화를 꿈꾼 ‘河西 道學과 文學’으로 바꾸면서

김재수(본회 상임이사 겸 편집주간)

- 하서 도학이 집약되어 있는 천명도天命圖에서 중화中和를 선善으로 표현한 것이 하서 도학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 성리학은 ‘중용中庸’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조 학술과 민족문화 발달에 중용적 철학 사상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중정中正’이란 말이 서민층 사이에서 널리 쓰인 것이 이를 증명한다.
- ‘중용’은 유학에서 소학小學과 함께 가장 실천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 중화中和는 명사名詞가 아니고 동사動詞이다.
- 천명사상에는 전 세계 모든 기층문화의 원형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생태학적 사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소지素地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미래지향적이다.
- 중국의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현대 중국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중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 오늘날 현대사회가 공감과 화합과 조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중화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상이다. 따라서 중화는 미래지향적인 사상으로각광받을 수 있다. 세계의 보편적인 사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것은 좋으나 그것이 목표일 수는 없다. 재미있고 쉬운 것을 통해 심오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산양회가 추구해야할 궁극적인 가치로서 천명과 중화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 수 백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궁극적인 목표를 부단히 추구해나가야 한다.
- 인터넷에 보면 하서 천명도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가장 많이 되었다. 따라서 천명도는 앞으로 하서 사상을 대표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 제지題字는 한국학술원 회원이시며 필암서원 원장이신 영산 박병호 선생께서 써 주셨다.